

Vol. 20 No. 948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March 15 2024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 20,30대, 비싸서 보스톤 떠나는데 왜 아시안은 반대일까

4명중 1명 꼴, 젊은이들 5년내 매사추세츠 떠난다  
비싼렌트, 고임금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  
라티노 이주계획 많지만, 아시안 대부분 매사추세츠 선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그레이터 보스톤지역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은 89%가 매사추세츠의 삶에 만족했지만 4명 중 1명꼴로 향후 5년내 보스톤을 떠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아시안들의 보스톤 삶 만족도는 다른 인종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레이터 보스톤상공회의재단 (Greater Boston Chamber of Commerce Foundation) 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25%의 20-30의 젊은이들은 향후 5년내 보스톤을 떠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그레이터 보스톤을 떠나야만 하는가

장 큰 이유는 바로 비싼 렌트비, 좋은 일자리, 그리고 높은 집값이었다. 한마디로 그레이터 보스톤에서 자녀를 기르면서 장래를 도모할 수 있는지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야 할 질문들이다.

66%의 응답자들은 렌트비 비용과 일자리가 떠나야 할지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답했으며 55%는 집 구입 능력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42%는 현재 렌트로 살고 있으며 18%는 집을 소유, 27%는 가족이나 친지와 살고 있었다.

워싱턴 소재의 리서치 회사 HIT 스트래티지 스가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이번 조



보스톤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은 향후 5년내로 25%가 떠나겠다고 밝혀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중 아시안들은 그레이터 보스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떠나겠다는 젊은이는 가장 적었다.(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는 젊은이들의 찾아 살 수 있는 매력적인 곳으로 보스톤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대처해야 할 문제를 제시해 주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총 823명이 참여했다.

젊은이들은 주거와 일자리 이외에도 대중교통과 이동수단(41%), 가족과의 거리(40%), 자녀양육비용(38%),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36%)을 중요 고려요소로 꼽았 ▶▶8면으로 계속

**THE PRO REALTY GROUP** 수잔리 부동산  
보스톤 투자, 주택, 콘도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선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특별한 보상. 전문적인 경우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아웃사이드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권유  
\* 조지아 아틀란타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경력 20년 이상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3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남일 교장, 명정호 교사, 주민정 교사 3명 한국학교 30년 장기근속상

## 2024년도 NE지역 한국학교 교사연수회 & 사은회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2024년도 뉴잉글랜드지역 교사 연수회 및 사은회에서 30년의 세월 동안 교사로 재직하신 남일 교장(뉴잉글랜드), 명정호 교사(북부보스톤), 주민정 교사(뉴잉글랜드) 3명이 장기근속상을 수상했다.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협의회(회장 남일, 이사장 오인식)주최로 3월 9일에 보스톤 장로교회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누리 한국학교,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메인 한글학교, 보스톤장로교회 한국학교, 보스톤 중앙장로교회 한글학교, 보스톤 한국학교, 보스톤천주교 한국학교, 애머스트 한국학교, 우스터 한국학교, 푸르미 문화 한글학교 등 모두 10개 회원교에서 교사와 관계자 등 백 오십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스톤 장로교회 본당 및 친교실에서 성대히 개최됐다.

이정설 교육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연수회에서 남일 회장과 오인식 이사장은 협의회 행사 중에 교사의 수고하심에 감사하며 가장 성대하

게 준비되는 이번 행사를 위해 맘을 많이 흘려주신 보스톤장로교회 관계자 여러분과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다고 환영사를 대신했다.

김재휘 총영사는 “각 지역에 있는 한국학교는 항상 우리 동포사회에서 언제나 구심점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자녀들이 전세계에서 1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국제어가 된 한글과 한국문화 역사를 배우는 배움의 장소일 뿐 아니라 물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배우는 발견의 장소이자 친구들과 교분을 쌓는 교화의 장소라고 생각한다.”며 최대의 지원을 약속했다.

보스톤장로교회 장성철 목사는 “한국어 교육도 이제는 획일성으로 일반화된 교육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교육현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언어는 포용력과 확장성을 가져야 하는데 도리어 줄어쓰기 성향으로 인해 도리어 수축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고 말하며 “한글이 세계적인



각 학교 우수교사-장기근속 교사-개교 20주년 이상 학교 표창수상자 단체사진

언어로 보다 확장되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고 당부했다.

이어 우수교사 표창 및 장기근속상 표창이 이어졌다. 이현경 교장(누리)이 25주년, 이현석 교사(뉴잉글랜드)가 15주년 장기근속상을 수상했으며 10주년 및 5주년 근속상 수상이 이어졌다.

보스톤중앙교회한국학교에는 개교 20주년 이상 학교 감사패가 수여됐고, 이현경 교장에게는 직지사

이 수여됐다. 이어 보스톤코리아 및 졸업생 오인희씨가 협의회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연수회 첫 번째 강연에서 독립기념관의 노지은 학예 연구사는 ‘보물이 된 대한민국의 상징, 태극기’를 내용으로 강연했다. 명지대 김경호 교수는 ‘교사를 위한 이미지 코칭-두근두근 설레이는 교실을 여는 교사’를 주제로 두근두근’ 설레며 학교 갈 날을 기다리도록 수업

을 준비하는 교사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의했다. 두 가지 전체 강연의 주요 내용은 협의회 홈페이지에 공유될 예정이다.

2부 순서를 마치며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스톤 장로교회의 청소년 오케스트라 (Youth Orchestra) 단원들이 임근영 집사의 지도로 은혜롭고 멋진 연주를 선사하여 ▶▶3면으로 계속

서울설렁탕  
겨울특선메뉴

#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Beef Soup with Soul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 시민협회 중국계 단체와 음력설 퍼레이드 개최

## 보스톤, 케임브리지, 벨몬트, 서머빌, 몰든에서 퍼레이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시민협회(회장 린다 챔피언)는 3월 3일 중국시민연맹보스톤로지, 중미헤리티지재단과 함께 음력설 축하행사 퍼레이드를 가졌다.

이번 퍼레이드 행사는 차이나타운 라이온 게이트에서 시작해서 케

임브리지, 벨몬트, 서머빌 등을 거쳐 몰든에서 마무리되었다.

이번 음력설 축하 퍼레이드에는 루씨 루이준 보스톤 시의회 의장과 에드 플린 보스톤 시의원, 로버트 산티아고 보스톤 보훈국장이 참여했으며 조셉 밀라노 유니온오시스터 하우스 회장이자 명예 태국영사가

퍼레이드 그랜드마샬을 맡았다.

시민협회 난타팀은 세번째 기착지인 서머빌에서 공연을 벌였으며 이 자리에는 캐치나 발렌틴 서머빌 시장과 에리카 아이터호번 주 하원의원 등이 함께 했다.

서머빌 행사에는 린다챔피언 회장을 비롯해 양미아 이사장, 그리고 크리스틴 리 사무총장등이 함께했다.



12일 헵턴 소재 보스턴장로교회에서 열린 교사 사은회에서 태극기 퀴즈를 풀고 있는 학생들

▶▶ 2면에 이어서 참가자들의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마쳤다. NE협의회의회는 5월 11일에 개 2024 NE지역 어린이 글짓기-손글씨 & 나의 꿈 말하기 대회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개최한다. 5월 25일에는 뉴턴 오크힐 파크에서 글짓기-손글씨 대회 시상식 및 2024년도 NE지역 사생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마지막 순서인 교사 사은회 행사는 박현아 총무와 김성희, 손연주 간사의 진행으로 저녁 식사 후에 시상식과 교사대항 퀴즈 및 제기차기, 공기놀이 등 민속놀이를 가졌고 이어 2024년도 우수배우자상 표창 순서를 가진 후 모두



#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 난민 위기 매사추세츠, 이민자 혐오 감정 높아져

## 이주민 지원에 주정부 자원 사용하면서 보수유권자 반발 주민의 절반이 이주민 위기는 주의 비상사태로 인식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경제 파국과 폭력을 피해 미국으로 도피해 온 중남미 이주민에 대한 매사추세츠 주민들의 반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주민들의 유입이 급격하게 늘어나자 데담에서는 이주민들에 대한 도움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으며 킹스턴과 퀸지의 셸터 밖에서는 네오 나찌 그룹이 반대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이 같은 반발은 전국적인 언론, 보수 성향의 의원들, 트럼프 대통령 선거캠프 등에서 반이민 발언들이 반복되면서 계속 확대 재생산 됐다. 특히 트럼프 선거캠프는 남쪽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이주민들을 미국의 혈관에 독약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락스베리의 임시 셸터가 결정되자 항의자들은 모라 힐리 주지사의 방문에 맞춰 시위를 벌였다. 네오 나찌그룹은 알링턴에 위치한 주지사 자택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처럼 매사추세츠의 주민들 사이에서 반이민 정서가 점차 높아져가면서 이들의 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훨씬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셸터로 사용되고 있는 락스베리 멜니아캐스레크레이션 센터에는 24명의 민간 보안 요원들이 이주민들을 24시간 경비하고 있다.

이주민들에 대한 여론은 막대한 주 재정이 이주민들에게 사용되면서 소수의 극우 그룹을 넘어 서 일반 주민으로도 점차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서퓙대학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1,000명의 매사추세츠 유권자 중에 거의 절반이 중남미 난민의 위기를 비상상황으로 규정짓고 있었다. 특히 4명중 3명은 미 국경통제가 “매우 위중한 문제”이며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우려, 중국의 파괴 확대와 함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로 꼽았다.

데이비드 펠로로고스 서퓙대 정치연구센터 소장은 “이 문제는 복잡한 문제다. 주내의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미국내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라고 말하고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 라고 덧붙였다.

펠로로고스 소장은 주 셸터 시스템의 과부하로 인해 연방 차원의 논란을 현실적인 싸움으로 변형시켰다고 지적했다.

같은 문제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제시 로드스 유매스 앰허스트의 정치학과 교수는 매사추세츠 주민들의 난민 위기에 대한 인식과 새로운 유입 난민 지원에 대한 커다란 재정적 비용 부담은 “이주민들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더욱 광범위하게 넓혔다” 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우려는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주민 또는 이민자들이 미국에 근본적인 위협으로 끊임없이 부각되는 맥락에서 이주민들 거주 셸터와 그들이 살고 있는 장소를 두고 많은 음모론이 존재한다” 고 제시 로드스 교수는 말했다.



## 재외동포협력센터, <2024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모집

###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 100명 선발 예정 4.12(금)까지 코리아넷(www.korean.net) 통해 온라인 지원 신청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외동포청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는 재외동포 사회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2024년도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을 모집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4월 12일까지 코리아넷(www.korean.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내야 한다.

센터는 우수 재외동포 학생들이 국내 소재 대학(원)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외동포 초청장학생사업을 1997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생활비(재학기

간중 매월 95만원), 최초 입국·귀국 항공료, 최초 소요경비, 보험료 등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진학 전 한국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재학중인 장학생들간 지역별 교류 활동과 대한민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졸업 장학생과의 교류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심사를 통해 선발된 장학생은 6월 중 관할 재외공관과 코리아넷에 게재할 계획이다. 문의는 센터 장학사업 담당자 (scholarship@okocc.or.kr)에게 할 수 있다.

# 면역력 재충전

##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FedEx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 ICON DENTAL 아이콘 덴탈

## Dedicated to Your Health

###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한 성인 및 청소년 치열 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전화 617.957.8133

57 Bedford Stree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oad, Suite A8, Concord, MA 071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수술 및  
잇몸질환 전문의

# 매사추세츠에서도 북극 오로라 볼 수 있게 된다

## 올 3월이 북극 오로라 보는 20년만에 최고의 기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올해 3월 지구의 자기장이 오로라 광선을 자주 쏘아내며 이는 매사추세츠에서도 볼 수 있게 된다.

천체기상 예보관들은 올해 3월이 20년만에 가장 쉽게 오로라 광선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예보했다. 이 북극광선은 대부분은 녹색이지만 분홍, 보라 그리고 빨강이 보이며 북극주변에서만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정 조건이 맞는 경우 이 북극광선은 플로리다 또는 아리조나에서까지 볼 수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보도했다.

3월에 북극 오로라 광선이 보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북극광선이 보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태양의 활동이 3월

19일인 춘분인근에서 더욱 활발해진다.

NASA가 지난 75년간 연구한 자료를 통해 과거의 사례를 보면, 3월에 가장 많이 오로라 광선이 보였으며 가을 추분을 지난 10월에 두번째로 많은 오로라 광선이 보였다. 4월과 9월은 각각 3번째와 4번째였다.

지난해 3월에는 일련의 태양의 활동이 미국 남쪽 국경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오로라를 일으켰었다.

춘분이 되는 시기에 태양과 지구의 북극지점은 수직으로 정렬해 태양의 바람이 더욱 강력하게 지구의 자기장을 통과하게 된다. 이 같은 태양의 바람이 지구의 자기장으로 파고들 때 별 표면의 자기장 폭풍이 흘

을 만들어 전자적으로 충전된 조각들이 수백만 마일 밖으로 쏘아져 내보내는 현상이 오로라다.

둘째, 지구 자기장의 양극이 북극에서 남극으로 바뀌는 11년 만의 솔라 사이클의 가장 절정이 올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구와 마찬가지로 태양도 양극과 음극의 극성을 가지고 있다. 이 극성이 음극에서 양극으로 바뀔 동안 더 많은 태양의 스팟과 지구표면의 날씨변화를 일으킨다.

자기장 선을 따라 감긴 원형 플라즈마 버블인 CME의 빈도는 솔라 미니엄 때는 1주일에 한번 솔라 맥시멈 때는 2-3일 정도로 바뀐다.

우주기상예측센터(the Space Weather Prediction Center) 솔라사이클 25주기로 알려진 이번 사이클에서는 솔라 맥시멈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래스카, 캐나다 그린란드에 사는 사람들은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번 태양의 강력한 분출은 북극 오로라를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도록 만들게 된다. 심지어 이 북극 오로라를 플로리다, 텍사스, 애리조나에서까지 볼 수 있도록 만든다.

hsb@bostonkorea.com



## 로드아일랜드 태권도 챔피언십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흥스월드클래스 태권도는 5월 11일 올해로 38주년을 맞는 로드아일랜드 오픈 태권도 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회에서는 겨루기, 품새, 격파, 팀 시범경기 등의 부문이 진행된다. 흥진섭 관장은 “오랜 세

월동안 지켜온 역사가 깊은 대회에 많은 태권도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 말했다.

이번 대회 참가문의는 흥진섭 관장(401-885-4900)에게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 신문을 독자여러분 집으로 배달해드립니다!

클릭만 하시면 바로 신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디지털 신문 이메일을 여러분 집에 격주로 배달해드립니다. 집에서 데스크탑으로, 태블릿으로 또는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에 신문 전 페이지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기사를 원하시면 바로 클릭만 하시면 PDF 지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크게 보고 싶으시면 위의 + 버튼을 눌러 주세요. 줄이고 싶으시면 - 버튼을 눌러주세요.

# 프라이머리케어 의사 부족, 매스주 예약 어려움 지속

신규 의사들, 일 많고 보수 낮은 프라이머리케어 선택 기피  
커뮤니티 헬스센터에는 아주 긴 대기자 명단  
건강검진 위해서는 예약 1년 이상 기다려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의사가 필요했을 때 프라이머리케어 의사를 예약할 수 있는 수치가 사상최저치를 기록했다. 의사 방문비용은 2019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소아과 방문은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부터 환자 여론조사를 실시해 왔던 매사추세츠헬스퀄리티파트너스(MHQP) 바바라 랩슨 대표는 “수치가 이 정도로 낮은 것을 한 번도 본적이 없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번 조사에는 새롭게 프라이머리케어 의사를 찾으려는 사람들 외에 이미 자신의 프라이머리케어 의사가 있는 사람들도 포함됐다.

2월말 발표된 2024년 프라이머리케어 스코어카드에 따르면 미국 25%, 매사추세츠는 17%가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내과의중 2021년에 신규로 프라이머리케어 분야에 의사로 진입한 의사는 15.5%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심장학 또는 온콜로지 등을 선택했다.

매사추세츠 의사협회의 바바라 스피바크 박사는 전혀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프라이머리케어 의사는 더 장시간 근무하고 스트레스 레벨도 높지만 전문의에 비해 보수는 훨씬 적다.

2023년 닥시미티 의사 연봉보고서(2023 Doximity Physician Compensation Report)에 따르면 프라이머리케어 의사는 \$294,000

의 연봉을 받으며, 심장과 전문의는 \$544,000, 정형외과의는 \$624,000의 연봉을 받았다.

“일이 고되고 보수는 적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매력적이지 아니다”라는 것이 스피바크 박사의 말이다.

특히 의료시스템도 프라이머리케어 의사의 핵심 업무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다. 프라이머리케어 의사는 만성적인 질환이나 예방의학 등을 다루는데 보험회사들은 이 같은 업무에는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다른 기술을 진행하는 것에 더 많은 비용을 보상한다.

한 프라이머리케어 의사는 “심장질환, 당뇨 등 심각한 질환에 대해 20-30분을 들어 이야기 하는데 \$125를 받지만 사마귀를 가진 환자를 니트로젠 용액으로 사마귀를 제거하는 시술에 10분이 걸렸다면 이는 \$180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사전 보험회사 보장 승인을 받는 것도 고역이다. 각종 의료 검사, 약 처방, 진료 서비스 제공 이전에 보험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 과정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 최대 보험사인 블루크로스블루실드(BCBS)는 사전 승인 요건을 몇몇 분야에만 한정하도록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용을 절감하고 적절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사전승인의 유지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매사추세츠 커뮤니티헬스센터의 프라이머리케어에는 환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보스톤글로벌에 따르면 브락턴네이버우드



헬스센터는 1600명의 성인 환자가 예약을 기다리고 있다. 병원의 수잔 조스 대표에 따르면 사상 처음으로 대기자명단을 유지하게 됐다.

다른 커뮤니티 헬스센터는 상황이 더 나쁘다. 매사추세츠 커뮤니티헬스센터 리그에 따르면 린 커뮤니티헬스센터는 6,300명이 대기자 명단에 있으며 그레이터로렌스패밀리 헬스센터는 8,000명이 대기자 명단에 있다.

조스 대표는 지난 6월 브락턴 호스피탈이 화재로 문을 닫은 것과 최근 이주민들의 폭증으로 인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인 매스헬스(MassHealth)가 프라이머리케어 비용을 기존의 방문 또는 진료 행위당 지불하던 것에서 환자당 고정적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커뮤니티 센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조스 대표는 내다봤다.

주정부는 프라이머리케어에 추가적으로

1억1천5백만달러를 투입하는 것 외에도 올해부터는 일정 진료에 대해서는 25%에서 35%로 지급을 인상했다.

최근 5년만에 프라이머리케어 의사를 만난 한인 조씨는 건강검진 예약을 잡으려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병원 업무과에 예약을 부탁했다. 담당직원은 1년 후에야 건강검진이 가능하며 혹시 중간에 예약 취소 자리가 있으면 알려주겠다고 했다. 다행히 5월에 예약 취소건이 있어 예약을 확정하자 그 자리에 있는 직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복권당첨”이라고 말했다. 2달 후 건강검진 예약이 복권 당첨과 같은 상황이 매사추세츠에서 지속되고 있다.

지난 보스톤코리아의 프라이머리케어 의사 예약 힘들다는 기사에 보스톤 근교 프레밍햄 소재 찰스리버메디컬어소시에츠에서 진료중인 이용현 박사(508-820-8332)는 “최소한 5월 내로 예약 가능하다고 한인 주치의의 찾지 못한 한인들은 연락을 달라”고 댓글을 달았다.



##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크라운
- 임플란트
- 잇몸 치료
- Invisalign
- Sleep Apnea

**보험**

- Delta Dental Premier,
- Blue Cross Blue Shield
-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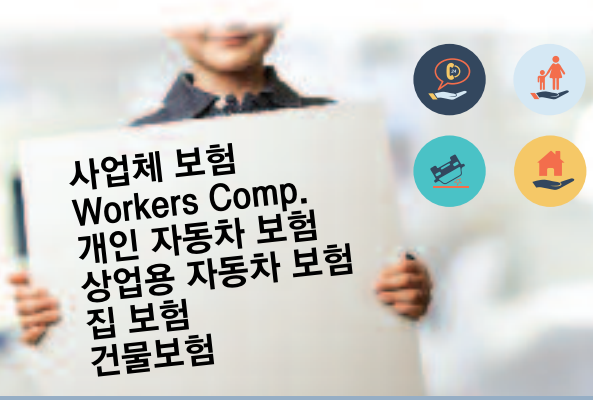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 다음달 전면 개기일식 어떻게 안전하게 사진 찍을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4월 8일 뉴잉글랜드에서 볼 수 있는 전면개기일식은 향후 20년간 다시 볼 수 없는 자연현상이다. 누구든지 이번 전면 개기일식을 촬영해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할 것이다.

필터를 거치지 않는 태양의 빛은 전면 일식과정에서도 눈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망가뜨릴 수 있다. 콜로라도 대학의 더글라스 던컨씨는 이는 돋보기로 태양열을 모을 때 불이 붙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의 렌즈는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은 태양 빛이 카메라를 녹이게 될 것이며 완벽한 손상을 가하게 된다” 고 던컨은 말하고 카메라는 인간의 눈과 마찬가지로 안전한 필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식 특수 필터는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모든 빛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제를 코팅한 것이어야 한다.

카메라에는 일식필터가 있다. 던컨은 솔라 스냅(Solar Snap)이라 불리는 필터를 스마트폰에 장착해야 한다. 필터 안경과 카메라 솔라 스냅은 구글로 찾아 볼 수 있다. 아마존에서 현재 날개로 사는 것은 완판됐다.

이 필터는 벨크로 접착을 통해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폰에 필터를 고정 접착시킬 수 있다. 솔라 스냅은 미 천문학회(American Astronomical Society)가 승인 것이다.

솔라 스냅 외에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제품이 많다. 그러나 솔라 스냅은 스마트폰 앱을 제공하며 빠르게



폰 카메라 세팅을 조절해서 자동으로 전면개기일식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한다.

일식의 전 과정은 2시간 반여의 시간이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것이다. 이를 전면일식이라 하며 이는 약 4분여에 그친다. 관심있는 사람들은 이 전 과정을 사진에 담고 싶어할 것이다.

따라서 솔라 스태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삼각대까지 한꺼번에 마련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안전 필터를 카메라에 부착하고 앱을 사용하고 초점을 조정한다. 이후 솔라 스냅은 매 1분 간격으로 일식의 진행 상황을 찍게 된다.

달이 완전히 해를 가리는 전면 일식의 순간에는 맨눈으로 태양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순간에는 폰에서 필터를 떼고 전면 일식의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면 된다. 특히 이 순간에

가장 삼각대가 필요하며 일정하고 흔들리지 않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다. 해가 다시 비치기 시작하면 즉각 필터를 다시 착용해야 한다.

스마트폰에서는 렌즈가 작아 아주 작은 일식의 이미지만 찍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텔레포토 렌즈를 구입해서 찍을 수도 있다. 이는 수달라에서 수백달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일부 맞춤형 스마트폰 렌즈는 폰에 부착하는 브래킷까지 함께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으로 좋은 사진을 찍기는 아주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하늘보다는 어두워진 풍경, 그리고 놀라는 관람객들, 동물과 새들의 특이한 행동 등을 찍는 것이 좋으며 특히 스마트폰으로 찍기에는 더 좋은 것들이라고 권장했다.

hsb@bostonkorea.com



## 전면일식 볼 수 있는 뉴햄프셔 장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4월 8일 전면개기일식의 완전체를 볼 수 있는 곳은 다행히 보스톤서 과히 멀지 않은 뉴햄프셔도 포함된다.

주 남지 않아 약 4분여간 태양이 달에 완전히 가리는 순간을 목격할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2044년까지 미국에 찾아오지 않는다.

뉴햄프셔 관광부는 이번 일식을 목격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 관광부의 로리 하노이스 이사는 “뉴햄프셔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모두 사전에 준비하고 아주 제한된 지역에서만 완전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뉴햄프셔는 합동정보센터와 일식을 위한 웹사이트 NHSolarEclipse.com을 개설했다. 이 웹사이트는 이번 일식관련

각종 팁과 도로 정보, 숙박, 스포츠 이벤트 등을 소개한다.

거의 대부분의 뉴햄프셔 지역은 부분적인 일식을 목격하게 될 것이며 방문자들이 전면일식을 보기 위해서는 뉴햄프셔 랭카스터 북쪽으로 올라가야 한다.

스튜어트타운(Stewartstown)의 콜먼 스테이트 파크(Coleman State Park)는 이번 전면일식을 보기 위한 장소로 개방된다. 이 공원에서는 전면개기일식파크 이벤트도 개최하며 아동 활동과 음식 다과 등을 판매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곳의 주차는 아주 제한적이라서 미리 예약이 필요하다.

컬럼비아에 있는 그레이튼노스 우즈아트센터도 스포츠 전면 일식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외의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매매 합니다**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 레스토랑 예약취소, 식사비용만큼 수수료 물어야 할 수도

### 레스토랑 예약 앱 활성화 이후, 수수료 부과 레스토랑 늘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레스토랑들이 노쇼 또는 막판 예약취소 등에 접한 사람당 \$100까지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뉴욕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브라이언 아지라씨는 아내의 생일을 맞아 미슐랭 선정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그러나 아들이 위중한 에스마로 입원하는 관계로 예약을 취소했고 그는 얼마 후 \$200가 수수료로 부과된 것을 알게 됐다.

레스토랑 측은 24시간 이전 예약취소 데드라인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 금액의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그는 이 같은 수수료 부과는 정말 분통터지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레스토랑 수수료 부과는 아지라씨만의 일이 아니다. 뉴욕타임스는 레스토랑의 상당수가 노쇼와 막판 예약 취소로 손해를 감당하게 되면서 강력한 수수료 부과로 돌아서고 있는 전환기라고 보도했다. 레스토랑 측은 몇 명의 예약 취소만 해도 레스토랑의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막대한 손해를 입힌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스토랑 예약 앱 레지(Resy)에 따르면 미국 레스토랑 중 최소한 1건의 예약취소수수료를 부과한 레스토랑이 2023년 1월 13%보다 훨씬 많은 17%로 증가했다. 특히 이는 2019년 1월 4%에 비해서는 큰 폭의 증가다. 특히 대도시 레스토랑일수록 이 같은 수수료 부과가 많았다. 뉴욕의 25% 레스토랑, LA와 마이애미의 20% 레스토랑은 예약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다.

레스토랑들은 팬데믹 이후 훨씬 많은 예약 취소 및 노쇼를 경험하고 있다. 뉴욕의 레스토랑 치도 그랑데는 1인당 \$20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2022년 6월부터 시작한 2개월 후부터는 노쇼가 90% 줄었으며 예약 취소는 60%가 줄었다.

예약 서비스 앱 오픈테이블에 따르면 28%의 미국인들은 지난해 노쇼를 경험했으며 2023년 비클레이뱅크의 조사에 따르면 200여 영국 레스토랑의 절반에 가까운 레스토랑들이 이전 해에 비해 노쇼가 40% 이상 늘었다고 답했다.

특히 레스토랑들은 과거와 달리 레스토랑 예약 앱인 오픈테이블 레지 등의 활성화로 예약자들에게 크레딧카드 정보를 기입토록 하게 함으로써 수수료 부과에 힘이 실리게 됐다. 과거의 경우 디파짓을 받는 것이 전부였다.

예약 앱 회사들은 24시간 전에 메시지를 보내 예약 확인 또는 취소 여부를 묻는다. 일반적으로 예약 취소는 24시간 전에 해달라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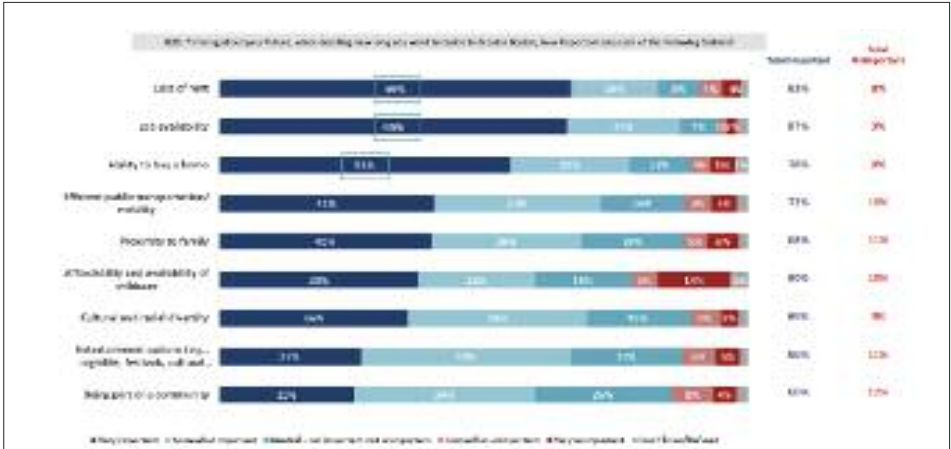
여전히 대부분의 레스토랑들은 예약취소 및 노쇼에 수수료 부과를 꺼려하고 있다. 한 레스토랑 업주는 “일반적으로 노쇼는 사전에만 알려주는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언젠가는 다시 올 손님에게 이를 부과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객들은 수수료에 대해 반기지 않고 있다. 일부는 수수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예약을 다른 날짜로 미루거나 크레딧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은행과 레스토랑이 분쟁을 벌이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수수료로 인해 소셜미디어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한다. 최근 노스엔드의 한 레스토랑과 손님의 소셜미디어 설전은 미 전역의 헤드라인으로 떠올랐다.

이 같은 분쟁에도 메시지는 분명하다. 식당 방문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어려운 경우 24시간 전에 취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행기, 의사 등 모든 다른 비즈니스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레스토랑이라고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hsb@bostonkorea.com



# 20,30대, 비싸서 보스톤 떠나는데 왜 아시안은 반대일까

▶▶1면에 이어서

다. 보스톤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은 인종 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인종 별로는 히스패닉이 29%로 가장 많이 떠날 계획을 하고 있었으며 고졸 학력 이하의 28%가 이주를 고려했다. 또한 흑인 여성은 35%, LGBTQ는 31%가 보스톤을 떠날 계획인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특히 아시안들은 가장 높은 77%가 보스톤에 남고 싶다고 밝혔고 가장 적은 18%만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졸자들도 보스톤에 남고자 하는 비율이 70%로 높았고 이주를 고려하는 비율도 23%로 낮았다.

보스톤의 삶에 대한 만족도도 아시안은 크게 높았다. 아시안들은 93%가 이곳의 삶에 만족도를 보였으며 백인들은 88% 만족도가 낮았다.

향후 주 정계 및 재계지도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젊은이들은 가장 많은 66%가 저렴한 주택 공급으로 꼽았다. 비싼 렌트비와 높은 집값이 매사추세츠 지역의 가장 큰 문제임이 드러난 것이다.

젊은이들은 또한 풍부한 양질의 일자리 (39%)와 높은 임금(35%)를 그 다음으로 주

요 정책으로 꼽았으며 이어 대중교통(30%), 교육(28%), 의료(27%) 순으로 꼽았다.

보스톤 상공회의소 제임스 루니 회장은 “젊은이들은 이 지역 미래의 일꾼들일뿐 만 아니라 현재 다운타운, 스몰비지니스의 중심 축이다. 향후 보스톤의 활성화에 주역이 될 젊은 거주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우리 리더들의 의 책임”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2022년 미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뉴햄프셔, 커네티컷, 뉴욕, 플로리다 등지로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특히 팬데믹 이후 원격근무가 용이해지면서 매사추세츠보다 좀더 저렴한 지역으로 떠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 경향인 가운데 실시된 이번 조사는 젊은이들의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전체적인 경향에서 아시안 젊은이들이 매사추세츠를 선호하는 것은 아시안들은 상당수가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으며 매사추세츠의 좋은 교육환경을 선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시안들은 매사추세츠가 향후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이 교육이란 답변이 38%였으며 이는 다른 인종에 비해 10% 이상이 높았다.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 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업재관 [jkeum56@gmail.com](mailto: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제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라운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mailto:sunautobody@yahoo.com)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요가송의 5분요가

# 하체 집중 케어 요가 - 볼록한 앞벅지 1cm 얇아지는 운동과 스트레치



“유독 앞벅지 살이 툭 튀어나와 고민이예요 ㅠㅠ”

“이상하게 엉덩살(엉덩이 밑의 군살)에 살이 잘 안빠져요..”

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구독하시는 분들을 비롯해, 최근 저의 라이브 요가 필라테스 수업을 신청한 회원들에게 많이 듣는 고민인데요, 사람마다 체형, 체질, 라이프 스타일, 식단 등이 다르기 때문에 체중을 감량시켜도 쉽게 빠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허벅지 군살을 빼려면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병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이와 함께 하체를 탄력있게 만드는 근력 운동과 부종을 빼는데 효과 높은 스트레칭도 주 3회 이상 해주시면 다리 라인이 훨씬 가늘고 날씬해 질 거예요. 제 한국어 유튜브 채널 '요가읽어주는 여자 hayeon' 에서 최근 영상에서 '하체케어' 루틴 영상을 찾아 따라해보시구요, 최근 영어유튜브 채널 (Yogasonghayeon) 에도 Slim Thighs를 주제로 영상을 업로드했으니 추가로 꼭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채널 모두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고 그때 그때 필요한 영상 골라서 꾸준히 홈트 해주시면 균형있는 몸매와 건강 유지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1. 레그 익스텐션 - 힙업, 엉덩살 제거**  
1단계 테이블 자세에서 한다리를 대각선 뒤로 길게 뻗어줍니다.

2단계 허리를 곧게 편 상태를 유지, 과도하게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합니다.

3단계 10번 반복후 영상을 따라 사이드 킥, 니셔클도 진행합니다.

4단계 제 큐잉에 맞춰서 모든 동작을 마친 후 반대로 넘어가시면 돼요.



**2. 덩키킥 펄스 - 다리 토닝, 하체 근력 강화**  
1단계 사진처럼 두 손을 바닥에 두거나 영상처럼 팔꿈치 하나를 바닥에 대고 자세 준비합니다.

2단계 한쪽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위아래로 펄스로 짧게 엷다운 반복합니다



3단계 엉덩이와 다리 바깥쪽 자극에 집중하며 끝까지 버텨줍니다.

**3. 나비자세 - 유연성 강화, 안벅지 토닝**

1단계 두 발 모으고 무릎을 벌려 앉아줍니다.

2단계 호흡내쉬면서 상체를 조금씩 내려 허벅지 안쪽의 근육을 늘려줍니다.

3단계 다리가 타이트하신 분들은 발을 조금 앞으로 가져가해보세요.

TIPS! 스트레칭은 본인 가동 범위에서 안전하게 진행해주셔야 몸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송선생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 & 필라테스**

**ZOOM요가&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1.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운동 가능
2.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체중감량'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 스트레

스해소, 우울증 개선의 효과

3. 꾸준한 개인 회원관리로 지속적으로 생활속 운동루틴을 이어가도록 지도

4. 강사로부터 실시간 '자세교정' (1:1개인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가능)

5. 첫 수업 체험 전, 선생님과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인의 목표와 NEED 전달, 수업에 대한 만족 극대화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fullnesslife 혹은 이메일 connect@yogafullness.life 로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치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ENG)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KOR) <https://bit.ly/3w9ks4u>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http://www.yogafullness.life)

**성 안토인 디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설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평일미사**  
화요일 /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http://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렬

**HANN 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메디케어 어드벤처지 공식등록기간 이달말 종료

메디케어 관련 등록기간 중 일반등록기간 (GEP, General Enrollment Period)과 메디케어 어드벤처지 공식등록기간 (MAOEP, Medicare Advantage Open Enrollment Period)이 3월 31일에 종료됩니다. 등록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전화: (영어) 1-800-336-2722, (한국어) 1-800-582-4259 이메일: askNAPCA@napca.org

**〈1〉 일반등록기간(GEP, General Enrollment Period)와 메디케어 어드벤처지 공식등록기간(MAOEP, Medicare Advantage Open Enrollment Period)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GEP와 MA OEP는 매년 같은 기간에 진행되지만 두 기간은 서로 다른 것이며 그 목적도 다릅니다.

GEP는 처음으로 Medicare 가입 자격이 되었지만 최초등록기간(IEP)을 놓쳐서 메디케어 파트 A 및/또는 파트 B에 등록하지 않았고 특별등록기간(SEP, Special Enrollment Period)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안 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메디케어 가입 자격이 됐을 때 다니고 있는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메디케어 등록을 연기했으면 나중에 은퇴하거나 고용주 보험이 끝난 후 8개월 동안의 특별등록기간(SEP) 자격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SEP를 놓치게 되면 GEP를 사용하여 메디케어에 등록해야 합니다.

MA OEP는 이미 메디케어 어드벤처지 플랜 (파트 C, MA 플랜)에 가입되어 있는데 갖고 있는 플랜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만을 위한 것임을 주의하십시오.

**〈2〉 일반등록기간(GEP)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GEP 기간 동안 메디케어 파트 A 및/또는 파트 B에 첫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다음 달 1일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최초등록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등록지연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메디케어를 유지하는 동안 더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에는 약품보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메디케어 파트 D가 필요하더라도, GEP에는 독립형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플랜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GEP는 파트 D가 아닌 메디케어 파트 A 및/또는 파트 B 등록을 위한 것입니다. 독립형 처방약 플랜에 가입하려면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열리는 메디케어 공식등록기간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3〉 메디케어 어드벤처지 공식등록기간(MAOEP) 동안 무엇을 할 수 있나요?**

〈1〉에서 언급했듯이 MA OEP는 이미 MA 플랜에 등록된 사람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MA 플랜에서 다른 MA 플랜으로 전환하거나 메디케어 어드벤처지 플랜에서 탈퇴하고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A 및 파

트 B)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돌아가면 독립형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플랜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MA OEP는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MA 플랜으로 전환할 수 없고, 독립형 파트 D 처방약 플랜에 가입할 수 없으며, 오리지널 메디케어 가입자의 경우 갖고 있는 파트 D 플랜을 다른 D 플랜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4〉 GEP 또는 MAOEP 기간 동안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메디갭 (Medigap) 플랜을 추가할 수 있나요?**

메디케어는 기본적으로 메디케어에서 보장하는 서비스 또는 품목에 대해 자기부담금 (deductible)을 다 지불한 이후, 의료비용의 80%를 보장합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A 및 파트 B)를 갖기로 결정하고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않는 20%의 비용도 보험으로 충당하고 싶다면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메디갭 플랜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메디갭 보험을 구매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메디갭 공식가입기간입니다. 이는 65세 이상인 수혜자가 메디케어 파트 B에 등록된 달의 1일부터 시작하여 6개월 동안입

니다. 이 기간 동안 메디갭 보험회사는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가장 합리적인 보험료로 플랜을 판매해야 하며 판매 거부할 수 없습니다.

메디갭 공식가입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메디갭 플랜을 구매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보험사는 귀하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보험 제공 여부, 가격, 제외 또는 제한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언더라이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대기 기간이 생기거나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가입을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어떤 주에서는 유리한 조건으로 메디갭에 가입할 수 있는 추가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NAPCA (전미 아태 노인센터)는 아시아계 미국인과 하와이 및 태평양제도 거주민의 고령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전념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저희는 고령자 및 간병인을 위한 NAPCA 노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5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http://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이 보입니다.



###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http://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개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http://www.bostonkorea.com)



COMPASS

Achieved in 2023

\$25M+

TOTAL SALES

40+

TOTAL # OF TRANSACTIONS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 I've helped 410+ clients find their place in Greater Boston

부동산 전문가,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FINANCIAL FREEDOM)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모든 상담을 해 드립니다.

실력, 열정 그리고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더욱 풍성한 2024년 새해가 되도록 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Awards/Honors:

- 2022, 2023 Boston Magazine Top Real Estate Producers
- Achieved top-ranked (#1) solo agent status at Compass Cambridge Office, demonstrating top performance in sales and client satisfaction
- Wall Street Journal America's Best Real Estate Professional List
- Hosted the Boston episode of 'The American Dream', a national TV show, highlighting Boston's real estate, and lifestyle to a nationwide audience

# 잘 나가던 테슬라, 올해 '제로(0)' 성장 내년엔 '마이너스(-)'

## 증권사 48곳 중 9곳이 사실상 '매도' 의견 내 웰스파고 "성장 없는 성장기업" 평가

(서울=연합뉴스)주중국 기자= 잘 나가던 전기차업체 선두 주자 테슬라의 앞날에 빨간 신호등이 크게 켜졌다.

올해 매출 성장은 '제로(0)'일 것이며, 내년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러 증권사가 테슬라에 사실상 '매도' 의견을 내놓고 있다.

13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를 주목하는 48개 증권사 가운데 웰스파고를 포함한 9개 증권사가 테슬라에 대해 '매도' 혹은 '비중 축소' 등급을 부여했다. 이렇게 매도 의견이 많은 건 2022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웰스파고는 이날 보고서에서 테슬라에 '매도' 등급을 부여하고 올해와 내년 테슬라의 암울한 실적 전망을 근거로 들었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4.5% 하락해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169.5달러로 마감했다. 올해 들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가 8.3% 오르는 동안에 테슬라 주가는 32% 하락했다.

올해 테슬라 시장 가치는 2천450억 달러 이상 사라졌으며 S&P 500 10대 기업에서 밀려나 현재 12위다. JP모건 채이스은행 바로 뒤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세계 1위 부자' 자리를 한 동안 차지했으나 지금은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 뷔통 모에 헤네시(LVMH) 회장,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에 이어 3위다.

테슬라가 이처럼 부진한 이유는 성장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테슬라의 매출과 이익 성장 속도는 작년부터 현저하게 둔화됐다.

50파크인베스트먼트의 이단사르한 최고경영자(CEO)는 "현재 시장은 테슬라가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매도자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면 뭔가 강한 촉매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월가 금융기관들은 테슬라가 3월 초에 실적을 발표한 뒤로 테슬라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과 베를린 인근 공장의 생산 차질로 인해 1분기 출하량이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기대치를 밑돌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치지만 별 힘을 못 쓰고 있다.

웰스파고의 콜린 랭겐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에 대해 "성장이 없는 성장기업"이라고 평가했다.

투자자문사 에버코어 애널리스트들도 테슬라의 텍사스 공장 탐방 뒤 '모델 2'로 불리는 테슬라의 저렴한 전기차는 2026년 50만 대 생산에 그칠 수 있다면서 테슬라가 다시 성장단계에 들어서는 것은 몇 년 뒤에나 가능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전까지 월가에서는 테슬라가 이차 2026년에 100만 대 이상 생산할 것으로 봤다.

최근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독일의 테슬라 공장

주가는 여전히 미래 예상 수익의 약 55배 수준에서 거래된다. 이는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의 평균 약 31배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랭겐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순이익 추정치를 지난해 주당 2.40달러에서 올해 2달러로 낮췄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평균 3.03달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엠투스 캐피털 어드바이저스의 데이비드 와그너 매니저는 "오랫동안 테슬라는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인 전 세계 자동차의 전동화를 바라보고 집중 투자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가장 선호하는 이야기는 인공지능(AI)이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도 뒷전으로 밀려났다. 매출과 순이익 성장이 둔화되면 과거의 기업가치 프리미엄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스페이스X, 달·화성 우주선 3번째 시험비행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의 세 번째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오는 14일(현지시간) 시도한다.

스페이스X는 13일 홈페이지에 "스타십의 세 번째 비행 테스트가 3월 14일 목요일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110분간 진행되는 테스트의 발사 예정 시간대(window)는 미 중부시간 기준 오전 7시(한국시간 14일 오후 9시)에 시작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발사 시점을 기준으로 약 30분 전부터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시험비행 과정을 생중계한다.

다만 "일정은 유동적이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X 계정에서 업데이트를 계속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미 연방항공청(FAA)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문서에 따르면 FAA는 스페이스X의 이번 스타십 시험비행을 이날 허가했다.

앞서 스페이스X는 지난 6월 스타십의 세 번째 시험비행 준비를 마치고 규제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페이스X는 지난 두 차례의 실패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새로운 시도를 스타십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 번째 발사 역시 이전처럼 텍사스주 남부 보카 차카 해변에 있는 스페이스X의 우주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이뤄진다.

앞서 스페이스X는 지난해 4월과 11월 스타십의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로 끝난 바 있다.

중환 교외이비인후과  
www.junmyo.co.kr

좋은사람들  
www.junmyo.co.kr  
성모안과

###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 이상 수술

##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 직원이 아시안컵에 카지노칩을 왜?... 풍파 자초한 축구협회

64년 만의 우승 도전하며 '칩' 들고 간 비상식에 의문 남.... '탁구게이트' 지나니 '카드게이트'... 명확한 조사로 의혹 해소해야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탁구게이트' 폭풍을 겨우 지나니 난데없이 '카드게이트'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대한축구협회가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준비 기간 축구협회 직원과 일부 선수들이 카지노에서 쓰이는 '칩'을 놓고 '카드 게임'을 했다는 추문에 휩싸였다.

14일 축구협회 조사 내용과 축구협회, 축구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아시안컵을 앞두고 1월 3일부터 10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진행된 전지훈련 중 일부 선수와 직원 A씨가 한국에서 가져온 칩을 사용해 카지노를 했다. A씨는 현장에서 선수단 지원 업무를 맡은 팀장급 직원이었다.

다양한 나이대의 선수가 카지노에 참가했다. 다만, 고참급이라 할 만한 선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체로 1996년생보다 어린 나이의 선수들이었다.

전지훈련 중 일부 선수들과 지원 스태프 사이에 작은 갈등이 있었는데, 이를 푸는 과정에서 휴게실에서 카지노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축구협회는 소집 기간이 긴 대회에 참가할 때 선수들이 자유롭게 숙소 내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카드, 장기, 바둑, 보드게임, 비디오게임이 비치된 휴게실을 운영해왔다.

카드놀이를 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없는 행동이다. 돈을 걸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내기' 수준의 소액이라면 용인될 법하다.

판돈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크게 잃은 참가자가 4~5만원 수준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축구협회 관계자는 전했다.

축구협회는 카지노를 하게 된 과정, 판돈의 액수 등을 놓고 불타들이 '도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냈다.

축구협회는 "선수들이 음료 내기 등을 위해 돈 계산을 하는 등 소액의 내기를 한 적이 다수 있었다"면서 "(이번 사건은) 도박성 행위와는 엄연히 다른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그래도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대체 카지노 칩이 어떤 경위를 거쳐 현장에 있었느냐.

칩을 활용해 카지노를 하는 것은 없이 하는 경우와 전혀 다르게 외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사안 관련 임원 회의를 마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부에 비칠 수 있다. 진짜 '도박'처럼 보일 수 있고, 실제로 팬들도 이 사건을 그렇게 바라보는 분위기다.

'64년 만의 우승'을 목표로 원정길에 오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칩을 선수단 숙소에 가져간 것 자체가 매우 비상식적인 행동이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2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이를 위해 자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카지노에 대한 도박성 여부를 판단했다.

축구협회는 A씨와 주변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A씨에 대한 징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 조사 과정에서는 A씨가 어떤 의도와 경위로 칩을 현장에 가져간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내야 한다.

축구협회는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전 전날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주장 손흥민(토트넘)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하극상'을 벌인 '탁구게이트' 사건으로 한바탕 흥역을 치렀다.

특히, 태국과 2연전으로 열리는 3월 A매치에서 이강인을 선발할지에 대한 선택을 황선홍 임시 감독에게

미뤄 탁구게이트 논란이 명단 발표 일인 11일까지 지속하도록 만드는 '자충수'를 뒀다.

이번 '카드게이트'가 촉발된 과정을 낱알이 밝혀내지 못하고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면, 축구협회에 대한 팬들의 신뢰는 정말 바닥이 날 수 있다.

한 축구협회 직원은 "점점 축구협회가 일반의 상식과 동떨어진 조직이 되어가는 느낌"이라면서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명확한 조사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24년 보스톤코리아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이메일과 카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24년에는 종이신문은 격주로 발간됩니다.

종이신문이 발간되지 않은 격주에는 디지털 신문이 발간됩니다.

디지털 신문은 이메일로 여러분에게 발송됩니다.

이에 따라 보스톤코리아 구독을 원하시는 독자분들은 구독 신청을 해주세요.

이메일로 구독을 신청해주시면 더욱 편리하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구독 신청 방법

1. 보스톤코리아닷컴에 회원가입을 신청해주세요.
2. editor@bostonkorea.com에 <구독신청합니다>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 與, 野 이종섭 · 도태우 쟁점화에 수도권 위기론 재점화

### 정당 지지율 상승 곡선에도 한강벨트' 등 전략 지역 후보는 고전 '선거전략 전환' 목소리 급부상... "민생 현안 · 미래 어젠더로 대응"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한주흥 기자 = 국민의힘에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수도권 위기론'이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후 상승 곡선을 그려온 당 지지율이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인 '한강벨트' 등 주요 전략 지역 후보들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 5~7일 실시된 한국갤럽의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 응답률 14.4%,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은 45%, 민주당은 24%를 각각 기록해 전달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반면, 서울 성동, 마포, 광진 등 '한강벨트' 지역구에서 진행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더 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오차범위 밖 열세를 보이거나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곳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합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밀린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다.

당내에서는 수도권 위기론의 원인으로 '위기 자초론'을 꼽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특히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 수사 대상으로 출국금지령을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을 야권이 집중적으로 선거 이슈화하면서 중도층 민심

이 이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 논란을 두고 야당이 무리하게 '해외 도피' 프레임을 씌워 공세를 펴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은 작년 9월 고발됐는데 (공수처가) 출국금지만 해놓은 상태로 기간만 연장하면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6개월 넘게 공수처가 뭘 해왔는지 보면, (이 장관이) 정부에서 맡겨진 역할을 하기 위해 출국한 건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출국한 건지 금방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은 몇몇 중량급 후보들은 원칙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해도 '타이밍'만큼은 좋지 않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선거 국면에서 정무적 고려가 부족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공동 선대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출국 금지령을 물렸다 해도 수사 대상인 것이 알려져 있었으므로 사건이 클리어된 후에 임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역시 공동 선대위원장인 나경원 전 의원도 전날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사건 수사는 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종섭 '수사처질' 논란에 대통령실 '맞지 않는 주장' (CG)

마포구에 출마한 조정훈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꼭 총선 전에 이렇게 출국하는 게 맞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단순한 외교 임명이 아니라 정치적 이슈가 돼 버렸다"고 했고, 강서울에 출마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BBS 라디오에서 "정부가 도피시켰다는 건 최소 봉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차원에서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합류한 이상민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무적 고려는 전혀 없이 무턱대고 (임명)하지 않았나"라며 "개인적 입장을 물으시면 저는 호주 대사 철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과거 '5·18 발언' 논란에 휩싸인 도태우 변호사의 대구 중

·남구 공천 유지 결정을 한 것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 출신인 이상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제안대로 재검토가 아주 엄중히 내려져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당의 의심받고 있다면 사실 읍참마속도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도려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물가는 예기치 못했던 부정적 변수다. 국정을 책임진 집권당으로선 '악재'일 수밖에 없는데, 당장 해결할 묘수가 마땅치 않아 답답해하는 분위기다.

서울에 출마한 한 후보는 통화에서 "장사가 너무 안되고 물가가 너무 높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해결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 걱정"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민주당의 공천 논란에 따른 반사 이익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나홀로 고공전'에 기대었던 선거 운동 방식을 전환할 시점이 됐다는 목소리가 크다.

조국혁신당 출범 직후 야권이 '정권 심판론'을 기치로 전열 정비에 나선 상황에서 '생활 밀착형 정책'을 제시하며 민생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총선 어젠더를 제시하는 등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강벨트에 출마한 한 후보는 통화에서 "여야가 서로 끌어내리기 경쟁처럼 돼 있는 것을 유권자들이 극도로 싫어한다"며 "집권당인 만큼 먹고사는 문제를 비롯해 민생 현안, 미래 어젠더를 얘기하는 방식으로 '포지티브 캠페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MAR. 15th - MAR. 21st, 2024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 SUPER EASY AND DECADENT MATCHA BASQUE CHEESECAKE

This easy recipe for Matcha Basque Cheesecake is perfect for special occasions like a St. Patrick's Day celebration or as a sweet treat for yourself.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녹차 바스크 치즈 케이크의 레시피를 H 마트가 공개합니다!



<b>Korean Pear 한국 배</b> PRODUCT OF KOREA <b>\$29.99</b> BOX	<b>Packed Garlic</b> 팩마늘 5 PCS/PKG <b>\$1.99</b>	<b>Yellow Papaya</b> 옐로우 파파야 LB <b>\$1.29</b>	<b>Kabocha</b> 단호박 LB <b>\$0.99</b>	<b>Fuji Apple</b> 후지사과 LB <b>\$1.99</b>
<b>Orri Mandarin</b> 오리 만다린 LB <b>\$2.99</b>	<b>Sweet Potato</b> 햇 고구마 LB <b>\$2.49</b>	<b>Ginger</b> 생강 LB <b>\$2.99</b>	<b>PULMUONE Tofu</b> 풀무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b>\$3.99</b> FOR	<b>Honey Ataulfo Mango</b> 허니 아틀포 망고 BOX <b>\$19.99</b>

###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Fresh Beef Chuck</b> Eye Roll Steak 생 목등심 스테이크 LB <b>\$10.99</b>	<b>Fresh Beef Top</b> Blade Steak 생 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b>\$9.99</b>
<b>Fresh Beef Heel Meat</b> 생 소 사태 LB <b>\$7.99</b>	<b>Fresh Sliced Pork</b> CT Butt Steak 생 돼지 목살 (소금구이용) LB <b>\$7.99</b>
<b>Fresh Boneless Chicken Thigh</b> 생 뼈없는 닭 사태 LB <b>\$2.99</b>	<b>Marinated Tenderized Pork</b> CT Butt Steak 양념 돼지 발집 목살 스테이크 LB <b>\$5.99</b>

###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b>Frozen Pollock Roe</b> 동태알 LB <b>\$5.99</b>	<b>Frozen Unagi Kabayaki</b> 우나기 9 OZ/PKG <b>\$8.99</b>
<b>Frozen Mackerel Pike</b> 꽁치 60-80'S/LB <b>\$3.99</b>	<b>Frozen Milkfish</b> 밀크피쉬 800 UP/LB <b>\$2.99</b>
<b>Frozen Catfish</b> 통갈치 1000 UP/LB <b>\$3.49</b>	<b>Fresh Catfish</b> 메기 LB <b>\$1.99</b>

FRI/SAT/SUN ONLY 금, 토, 일 한정판매

### SMART CARD MEMBER ONLY

<b>SM Kimchi Pancake</b> 서울마님 김치전 17.64 OZ (2 EA/PKG) <b>\$4.99</b>	<b>ORION O'Jelly Gift-Box</b> 오리온 오젤리 기프트 박스 23.3 OZ <b>\$7.99</b>
<b>ORION Choco Mont Gift-Box</b> 오리온 초코몽 기프트 박스 17.64 OZ <b>\$7.99</b>	<b>WANT WANT Milk Drink</b> 원트 원트 밀크 드링크 8.3 FL OZ X 6 CANS/PKG <b>\$7.99</b>

<b>RAW NATURE Cooked Brown Rice</b> 자연담은 자연미 현미밥 7.4 OZ X 12 BOWLS/PKG <b>\$10.99</b>	<b>SAMYANG Spicy Chicken Flavor Ramen Big Bowl</b> 삼양 불닭볶음면 큰컵 3.7 OZ X 6 BOWLS/BOX <b>\$9.99</b>	<b>KWANGCHEON Green Tea Seaweed/Seasoned Laver</b> 광천 녹차/청파래 도시락김 0.17 OZ X 16 EA/BOX <b>\$4.99</b>	<b>PULMUONE Thin Wrap Vegetable/Kimchi with Pork Dumplings</b> 풀무원 얇은피 팍찬속 고기야채만두/김치고기만두 19.8 OZ <b>\$8.99</b>	<b>THE HOUSE Korean BBQ Flavored Beef Patty</b> 그 집 떡갈비 전통/매콤 떡갈비 ORIGINAL/SPICY 16 OZ <b>\$9.99</b>
<b>HAIO Frozen Seafood Mix</b> 해오름 해물모듬 1 LB <b>\$4.99</b>	<b>HAIO Frozen Seasoned Pollack Roe</b> 해오름 명란젓 2.2 LB <b>\$21.99</b>	<b>PULMUONE Jjamppong Noodle Soup Kit</b> 풀무원 직화 짬뽕 12.8 OZ <b>\$4.99</b>	<b>SEOUL MILK Infant Baby Cheese</b> 서울우유 양팡 아기 SELECTED VARIETIES 6.34 OZ <b>\$4.99</b>	<b>KTOWN Sesame &amp; Coconut Cracker</b> K TOWN 고소애 11.29 OZ <b>\$2.99</b>
<b>CROWN Shin Zzang Snack</b> 크라운 신짱 8.64 OZ <b>2\$6</b> FOR	<b>HAITAI Crushed Pear Drink</b> 해태 갈아만든 배 8.04 FL OZ X 12 EA/PKG <b>\$10.99</b>	<b>HELLO! Stainless Steel Laundry Drying Rack</b> 헬로! 대형 스텐 빨래 건조대 LARGE (156 X 75 X 200 CM) <del>-\$54.99</del> <b>\$37.99</b> EA	<b>ARTWARE Natural Glass Water Bottle</b> 아트웨어 내추럴 내열유리 물병 1.3 L EA <del>-\$18.99</del> <b>\$12.99</b>	<b>Bathroom Soap Stand</b> 흡착 비누받침 <del>-\$4.99</del> <b>\$2.99</b> EA
			<b>Bathroom Tooth-brush Holder Cup</b> 칫솔꽂이 양치 컵 <del>-\$4.79</del> <b>\$3.49</b> EA	

전통 먹거리 문화의 명가 - **반찬단지** 한국 인기 브랜드인 반찬단지를 H 마트에서 만나보세요!

품질의 차별성과 기술의 바탕으로 고객의 식탁을 책임지는 반찬단지는 한국 전지역 전통시장 및 단체급식, 대형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에 공급함으로써 맛으로 인정 받았으며, HACCP, ISO22000, FSSC22000 등에서 인증받아 더욱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40년 전통**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2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b>이사 이제봉</b> DIRECTOR 781.654.5281 jee@bostonpremierrealty.com	 <b>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권</b>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	 <b>매니저 캐시 송</b>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ellysong@bostonpremierrealty.com	 <b>매니저 크리스틴 손</b>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k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b>매니저 신보경</b>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ahn@bostonpremierrealty.com
---	---	---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c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b>김지현</b> 978.494.2043 jehy@bostonpremierrealty.com	 <b>노미</b> 617.447.0501 nohmi@bostonpremierrealty.com	 <b>박주</b> 617.780.7639 tjpark@bostonpremierrealty.com	 <b>장희</b> 978.866.3248 heej@bostonpremierrealty.com	 <b>이인주</b> 401.538.3397 iv.lee@bostonpremierrealty.com
 <b>박소</b> 617.338.0787 so.park@bostonpremierrealty.com	 <b>그레이스 김</b> 617.455.7710 grace.kim@bostonpremierrealty.com	 <b>한수연</b> 617.528.6973 hansoyeon@bostonpremierrealty.com	 <b>민소</b> 253.503.0347 minso@bostonpremierrealty.com	 <b>박지</b> 413.507.1400 jipark@bostonpremierrealty.com	 <b>손정태</b> 617.913.3348 sonjungtae@bostonpremierrealty.com
 <b>최진진</b> 617.877.0387 jinjin@bostonpremierrealty.com	 <b>이형순</b> 781.836.3412 sooh@bostonpremierrealty.com	 <b>한혜숙</b> 781.959.1214 hanheesook@bostonpremierrealty.com	 <b>장혜향</b> 617.915.1162 hyang@bostonpremierrealty.com	 <b>이중국</b> 617.543.0728 jg@bostonpremierrealty.com	 <b>박희</b> 404.641.9192 heep@bostonpremierrealty.com
 <b>Tammy Woolfolk</b> 917.294.5810 tammywoolfolk@bostonpremierrealty.com	 <b>Nancy Wang</b> 617.230.8482 nancywang11@bostonpremierrealty.com	 <b>Shirley Zhao</b> 857.531.0314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b>Vivian Ye</b> 617.936.2713 vivianye@bostonpremierrealty.com	 <b>Xian Dole</b> 413.527.8979 xian@bostonpremierrealty.com	 <b>Lu Jiong</b> 248.449.0117 jiong@bostonpremierrealty.com
 <b>John Tran</b>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b>Rebecca Phu</b> 617.833.1888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b>Michael Sorra</b> 978.873.0076 msorra@bostonpremierrealty.com	 <b>Linda Tu</b>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b>Jun Wang</b> 646.278.26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b>Lily Wang</b> 617.936.7212 lily@bostonpremierrealty.com
 <b>Crystal Wei</b> 413.308.0255 cwei@bostonpremierrealty.com	 <b>정혜민 박</b> 201.446.8995 min@bostonpremierrealty.com	 <b>재미크 김</b> 781.596.0409 kim@bostonpremierrealty.com	 <b>이신현</b> 857.260.0434 shin@bostonpremierrealty.com	 <b>Mini Belanger</b> 413.257.1586 mini@bostonpremierrealty.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 출구없는 갈등...의대교수 집단행동 움직임 · 유효휴학 6천명 상회

### 각의대 교수 '비대위' 구성하거나 사직 의사 조사 1인 의사 지역 진료 우려...병동 통폐합 등 비상경영하는 병원 속출

(전국종합=연합뉴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의대생들의 반발도 이어지며 지난 13일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의 32.2%인 6천51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3주째 지속되면서 공중보건외과·내과·외과 등 급수혈됐지만 진료 정상화까지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전체 환자 수가 줄면서 병동을 통합하거나 병상을 축소하는 상급 종합병원들도 나타나고 있다.

공보의가 차출된 '1인 의사' 보건지소들은 진료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 의대 교수들 움직임 본격화...단체 구성·사직 의사 조사 착수

동아대 의대 교수진들은 14일 협의회를 결성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동아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2천명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학교를 떠난 학생의 의견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선배 교수로서 제자들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다하고자 앞서와해했던 교수협의회를 재건했다"고 밝혔다.

김정일 교수협의회장(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은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돼 동아대 제자들이 학교와 병원에서 학업과 수련에 정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가톨릭대 의대 교수의 89.4%는 전공의나 의대생에 대한 제재가 있으면 사직서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학 의대 교수회 비대위에 따르면 최근 전체 교수(176명)를 상대

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제재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답한 교수(123명)의 89.4%가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충북대 의과대학·충북대병원 교수 160여명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전날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집단 사직 여부를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90여명 교수 대다수는 정부가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사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오는 주말에 걸쳐 의견 수렴을 거쳐 사직 여부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경상국립대학교 의대 교수진도 전날 비대위 총회를 열고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하고 제출 시점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날 총회에서는 사직서 제출 여부 투표가 진행됐으며 교수진 전체 260여명 중 약 80%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이날 오후 4시 긴급회의를 소집해 의대생 집단휴학과 전공의 이탈 사태의 대책 등을 논의한다.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들은 15일 낮 12시 30분께 제주대 의전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대를 포함한 전국 19개 의대 교수는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칠 것으로 했다.

울산대병원 교수협 비대위는 지난 11일부터 개별 교수들로부터 자발적 사직서 제출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울산대학교 오연천 총장은 의대 교수진에 호소문을 보내 "의대 정원의 규모와 단계를 둘러싼 개별 입장 차이를 떠나 국민의 생



13일 오후 충북대학교의과대학·충북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이 청주시 서원구 충북대의대 1층 대강의실에서 긴급 임시 총회를 가진 뒤 퇴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오는 주말 집단 사직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명과 건강을 지키는 과업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취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 양성과 관련된 견해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진료와 의학교육 노력은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다른 입장을 추구하더라도 국민 생명과 직결된 기본 진료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는다"라고도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도 전날 기준 6천51건으로 집계됐다. 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 기준이다.

◇ 공중보건의·군외관 투입 효과적은 듯... '1인 의사' 지역은?

전남대병원에는 전날부터 공보의와 군외관이 진료를 시작했으나 의료진 공백 해소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과거된 의사 상당수가 비필수와 전문의거나 일반의사이기 때문이다

경북대병원에도 대구시 보건의 4

명이 과전대 응급실에 투입됐으나 일반의사들이므로 파악됐다.

경북대병원 응급실은 이날 이비인후과 의료진이 없어 진료가 어려우며 매주수·목요일 외과 진료가 불가능하다.

대전 충남대병원에는 전날 8명의 군외관·공중보건의가 과전대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성형외과에서 진료 중이다.

울산대병원에는 마취과 2명, 일반의 3명 등 공중보건의 총 5명이 투입됐다.

인하대병원에는 군외관 1명과 공보의 4명이 긴급 투입됐으며 입원 환자 진료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하대병원 관계자는 "추가 인력이 투입돼 어느 정도 현장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공백을 모두 해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보의 차출로 진료가 중단된 전남지역 '1인 의사' 보건지소들은 이번 사태로 인한 의료공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병원 등으로 차출된 전남지역 공보의는 23명인데, 전남 2개 시·군의 보건지소는 의사 1명이 근무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강원도 내 일부 지역 보건지소에서는 공보의 차출로 인해 운영을 축소하고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정선보건소 신동보건지소의 경우 4월 첫째 주까지 공보의 1명이 상급 병원으로 차출되면서 주 5회 운영을 주 1회(목요일) 하루만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소는 향후 정부 방침에 따라 순환근무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 전체 환자 수 줄자 병동 통합·병상 축소... '비상경영'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대학·종합병원은 경영 악화 상황에 놓였다. 환자 수 자체가 줄면서다.

각 병원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병동 폐쇄, 직원무급 휴직 시행 등 사실상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대전성모병원은 이날부터 외과와 정형외과, 부인과 병동을 통합 운영한다. 건양대병원도 주로 경증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내과계 병동 3개를 폐쇄했다.

대전을지대병원은 이달부터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무급휴가 신청을 받아 100여명이 순차적으로 휴가에 들어갔다. 대전성모병원도 의사를 제외한 전 직군을 대상으로 무급휴가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내일부터 병동 2개를 통합하고 또 다른 병동 2곳은 병상수를 줄이기로 했다. 이 병원은 홈페이지에 현 상황을 언급하며 '환자분들의 안전을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했다'고 공지했다.

제주대병원은 지난 11일부터 병원 간호부 소속 전체 직원 800여 명을 대상으로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날까지 20여 명이 무급휴가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대병원은 내과 중환자실 운영 병상수도 20개에서 12개(내과 8·응급 4)로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또 간호·간병서비스 통합병동을 2개에서 1개로 통폐합했다. 수술실도 12개에서 8개로 축소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최근 입원 병상 가동률과 수술 건수가 기존의 30~50%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병원은 비응급 수술 일정을 일부 연기하며 응급, 중증, 암 환자에 대한 수술을 중심으로 근무 중인 의료진을 투입 중이다.

(이강일 박주영 기자 외)



12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 설치된 TV에 이날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화면 가운데)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화면 왼쪽)의 모습이 보도되고 있다.



# 기쁨을 주십시오, 위험 말고.

복권은 아동 및 10대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웹사이트

[mass.gov/YouthGambling](https://mass.gov/YouthGambling)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The MA Problem Gambling  
**Helpline**  
800-327-5050

# '오픈하이머' 오스카 돌풍... '무관의 제왕' 놀런 첫 수상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오보람 기자 = 미국의 핵무기 개발을 주도한 천재과학자 로버트 오픈하이머의 전기 영화인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오픈하이머'가 올해 미국 아카데미(오스카) 시상식에서 주요 상을 휩쓸었다.

한국계 셀린 송 감독의 '패스트 라이브즈'는 아쉽게도 상을 받지 못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열린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오픈하이머'는 최고상인 작품상을 비롯한 7개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아 올해 시상식의 최다 수상작이 됐다.

작품상 외에도 감독상, 남우주연상, 남우조연상, 촬영상, 편집상, 음악상이 '오픈하이머'에 돌아갔다.

'오픈하이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끈 오픈하이머의 삶을 그린 전기 영화로, 전 세계적 흥행 성적과 평단의 호평을 등에 업고 올해 아카데미상을 휩쓸 것으로 일찌감치 점쳐졌다. 후보로 오른 부문도 13개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시상식에서 동양적 정서가 짙고 아시아계가 활약한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가 작품상을 포함한 2관왕을 한 것과 달리 올해 시상식은 미국의 위인과 역사에 관한 이야기인 '오픈하이머'가 시상식의 주인공이었다.

놀런 감독은 이날 생애 처음으로 아카데미 감독상도 품에 안았다. 그는 '딩케르크'(2017), '인스텔라'(2014), '다크 나이트 라이즈'(2012), '인셉션'(2010), '다크 나이트'(2008), '베트맨 비긴즈'(2005) 등 화려한 필모그래피에도 상복은 없었던 '무관의 제왕'이었다.

남우주연상도 '오픈하이머'의 킬리언 머피에게 돌아갔다. 그는 오픈하이머의 천재성과 인간적 고뇌를 생동감 있게 그려냈다고 평가받았다.

경합이 치열했던 여우주연상은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가여운 것들'에서 여자 프랑켄슈타인으로 혼신의 연기를 펼친 에마 스톤이 품에 안았다.

그의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수상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라랜드'(2016)로 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플라워 킬링 문'에서 깊은 호소력을 가진 연기를 한 릴리 글래드스톤이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의 미국 원주민 출신 여우주연상 수상자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지만, 상을 받지는 못했다.

여우조연상은 '바튼 아카데미'에서 미국 명문고 주방장을 연기한 데비안 조이 랜돌프, 남우조연상은 '오픈하이머'에서 오픈하이머의 적수 스트로스를 연기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수상했다.

한국계 감독의 작품으로 주목 받은 미국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는 작품상과 각본상에 노미네이트됐지만, 수상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각본상은 쥐스틴 트리에 감독의 '추락의 해부'에 돌아갔다.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가 다관왕을 한 작년과 비교하면 올해는 '아시아 돌풍'은 없었다.

다만 일본 영화 두 편과 프랑스 영화 '추락의 해부', 대사 대부분이 독일어와 폴란드어로 구성된 영국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 등 외국 작품에 상을 분배하며 다양성을 확보했다.

일본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연출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장편애니메이션상을 받았다. 미야자키 감독의 장편애니메이션상 수상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2002)에 이어 두 번째다.

괴수 영화 '고질라 마이너스 원'까지 시각효과상을 가져가면서 일본은 2개 부문에서 수상작을 냈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에, '고질라 마이너스 원'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원' 등에 밀리는 양상이었으나, 두 작품 모두 상을 타는 데 성공했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미국 외 국가 중 가장 뛰어난 작품에 수여

▲ 작품상	오픈하이머
▲ 감독상	크리스토퍼 놀런(오픈하이머)
남우주연상	킬리언 머피(오픈하이머)
여우주연상	에마 스톤(가여운 것들)
각본상	추락의 해부
각색상	아메리칸 픽션
남우조연상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오픈하이머)
여우조연상	데비안 조이 랜돌프(바튼 아카데미)
촬영상	오픈하이머
편집상	오픈하이머
음악상	오픈하이머
주제가상	바비(왓 워즈 마이 메이드 포)
음향상	존 오브 인터레스트
분장상	가여운 것들
미술상	가여운 것들
의상상	가여운 것들
시각효과상	고질라 마이너스 원
국제장편영화상	존 오브 인터레스트(영국)
장편애니메이션상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단편애니메이션상	워이즈 오브
단편영화상	기상천외한 헨리 슈거 이야기
장편다큐멘터리상	마리우폴에서의 20일
단편다큐멘터리상	라스트 리퍼어셈블리

하는 국제장편영화상과 음향상을 받아 2관왕을 차지했다.

장편다큐멘터리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담은 므스티슬라프 체르노프 감독의 '마리우폴에서의 20일'이 받았다. 우크라이나 영화로는 첫 오스카 수상작이다.

지난해 시상식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 알렉세이 나발니의 독살 시도를 다룬

'나발니'가 장편다큐멘터리상을 받은 데 이은 것으로, 러시아에 대한 비판적 정서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영상이 뛰어난 '가여운 것들'은 의상상, 분장상, 미술상 등 관련 부문을 싹쓸이해 눈길을 끌었다.

10개 부문에 후보로 오른 '플라워 킬링 문'은 단 하나의 상도 못 받았다.

rambo@yna.co.kr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애프터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The Korean Americ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presents:

# KSEA NMSC 2024 National Math & Physics Competition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Math Grades 4-11:**  
April 6, 2024. 2PM ET  
Korean School of New England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Sponsors:



**Register by:** March 31, 2024  
<https://nmssc.ksea.org/newengland>

**Online Contact:**  
nmscinfo@ksea.org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80) 자영업과 노후대책

오래전부터 자영업 하는 친구들에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했다. 주식시장 수익률 약 10%를 예를 들었다. 그런데 친구들의 얼굴이 우습지(?)도 않다는 표정이다. 이유는 본인들이 상품을 \$50에 사서 \$100에 팔면 수익률이 100%라고 한다.

한 달에 \$500씩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추천했다. 이것 역시 반응이 신통치 않다. 이유인즉슨 한 달에 \$500 즉 일 년 \$6,000 투자에서 10년이 지나면 \$60,000이다. 이것이 어느 세월에도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다.

미용 재료, 옷 가게, 세탁소, 식품점, 등 자영업 하는 친구들은 상품 수를 더 늘리고 규모를 더 크게 하는 데 노력한다. 이것이 노후대책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세상이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해서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 이민해 온 일 세대, 언어도 자유롭지 못한 이국땅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한푼

두푼 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심지어 목숨을 담보 삼아 자영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쉽게 만날 수 있다. 한인 부부가 이렇게 어렵게 고생스럽게 평생 비즈니스를 운영했다면 노후라도 편안한 생활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 여기에 기대수명 연장으로 은퇴 후에도 2, 30년간 수입 없이 살아야 한다.

자영업 하는 분들이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본다.

투자 수익률 10%란 투자 돈이 7.2년마다 두 배로 불어난다. 10만 불 투자는 7.2년 후 20만 불, 또 7.2년 후는 40만 불, 또 7.2년 후 즉 22년 후에는 80만 불로 불어나는 놀라운 수익률이다. 이런 투자 복리(Compound Interest) 효과를 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주식 투자에 가장 치명적이다. 조급한 마음은 주식시장의 높은 수익률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노후 자금 마련을 어렵게 한

다.

자영업 하는 분들에게 한 달 \$500은 그리 큰돈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지난 30년(1994-2023) 주식시장 연평균은 10.16%이다. 30년 동안 꾸준히 주식시장에 투자했다면 비즈니스와 전혀 상관없이 현재 \$100만 불 이상으로 불어났다. 부부가 함께했다면 \$200만 불로 백만장자이다. 사람마다 소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이만한 목돈은 편안한 은퇴 생활로 이어지게 한다.

모든 투자의 기본은 분산투자이다. 자영업 하는 분이 한두 개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면 모든 투자가 한곳으로 집중된 것이다. 여기서 언급하는 주식시장(S&P 500) 투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테슬라, 등과 같은 기업 500대 기업을 하나로 묶은 투자 종목이다. 주식시장에 투자한다는 것은 500대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다. 이것이 투자 위험성을 적게 하는 것이다. 본인의 비즈니스가 생각한 대로

잘되지 않았다 가정해도 노후대책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모두 언젠가는 은퇴하게 된다. 비즈니스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노후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처분하면 목돈이 나온다. 부부가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창출해야 하는 소중한 목돈이다. 주식 투자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소중한 목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비즈니스 운영하며 작은 투자가 은퇴할 때 쯤 크게 불어난 것을 경험한 투자자는 큰 목돈 역시 제대로 하는 투자로 자연스럽게 옮겨 갈 수 있다.

일반인이 노동으로 부를 쌓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투자의 현인인 워런 버핏은 ‘잠자는 동안에도 내 돈이 불어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 고 언급한 것이다. 미국에 이민 와서 많은 고생을 한 일 세대, 제대로 하는 투자로 편안하고 안락한 은퇴 생활로 이어지기를 희망해 본다.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원화源花 미실美室(20))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579년 진평왕이 즉위하였다. 조모 사도태후에 의해 12살의 어린 김백정은 갑자기 왕이 되었다. 사도가 섭정을 하였고 미실과 보명이 좌우후가 되어 색도를 하였다. 미실은 왕궁에서 살지 않고 영흥사永興寺로 거처를 옮겼다. 영흥사는 법흥왕의 왕후 보도부인(保道夫人)이 건립한 사찰인데, 진흥왕의 왕후인 사도왕후도 만년에 동 사찰에서 여승으로 머물렀다. 그런데 보도왕후는 만년에 들어가 여승이 된 것이 아니라, 화랑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딸 지소(진흥왕의 모후)를 출산 후 아이들을 낳지 못하게 되자 어느 무렵 강제로 출궁당하여 비구니가 되었다. 제21대 비처왕(소지왕)의 딸로 태어난 보도(保道)공주는 김원종(후에 법흥왕)과 결혼하여 태자비가 되었지만 총애를 받지 못했다. 보도에게는 이부동복의 아우 오도(吾道)가 있었다. 오도는 선혜왕후(비처왕의 왕후)와 중승 묘심이 사통하여 낳은 딸이다(이들이 삼국유사에 기록된 사금갑의 주인공들이다). 오도는 매우 아름다워 태자 원종으로 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오도는 태자보다는 1세 풍월주위화랑의 위풍당당한 품모에 반해 그를 흠모하며 따르다가 딸 옥진과 금진을 낳았다. 그러자 원종태자는 오도를 아시공(원종

의 딸 삼엽공주의 남편)에게 후처로 삼게했고, 사통하는 관계였던 벽화(그들은 삼엽을 낳았다)는 비랑에게로 하가(下嫁)시켰다. 그리고 나서 마음을 돌려 조강지처인 보도부인을 가까이 하였다. 그러나 그 사랑은 오래가지 않았다. 위화랑(과 오도)의 딸 옥진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옥진을 좋아하게 되었다. 박영실과 옥진이 결혼식하는 날, 법흥왕은 친히 참석하여 그들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다. 하지만 옥진의 미모에 빠진 왕은 그녀를 후궁으로 삼았고, 영실에게는 자신의 딸 지소와 맺어 주었다. 당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기록된 옥진과의 사랑에 빠진 법흥왕은 왕후 보도부인에게는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게 하였다. 이때 지은 절이 영흥사이다. 많은 왕후와 태후, 후궁들이 이 사찰에서 여승이 되었으니 영흥사는 단연코 왕실의 원당(願堂)이다.

영흥사는 현존하지 않는다. 현재는 경주공업고등학교(경주시 사정동)가 들어서 있는데 건물을 세우면서 많은 석조유물이 출토되었다. 사찰의 기둥을 세웠던 주춧돌과 석탑의 몸돌, 지붕돌 등 다양한 석조유물이 출토되었는데 현재는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영흥사는 경주의 칠처가람(七處伽藍) 중의 하나인 유명한 사찰이었다.

미실이 거처를 영흥사로 정하자, 그의 심복이자 정인인 설화랑은 경호의 총책임자(신상(私臣頭))가 되어 죽는 날까지 변치않고 곁에 있었다. 미실에게 목숨을 바쳐 충성한 자

는 설화랑이고, 세종에게 시종일관 충성한 자는 문노였다. 606년 봄 어느날, 미실이 괴질에 걸렸다. 여러 달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병석에 누워 있었다. 이에 설화랑은 주아로 미실의 병을 자신이 대신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그의 기도를 ‘부처님’ 이 들어 주었을까? 마침내 설화랑은 같은 괴질을 앓았고 곧 미실은 병석에서 일어났다. 설화랑은 (미실을 대신하여?, 전염병으로 추측된다) 얻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606년 7월에 사망하였다. 미실은 슬피 울며 자신의 속곳을 함께 넣어 장사 지내며, “나도 또한 오래지 않아 그대를 따라 하늘에 갈 것이다” 라고 하며 정인을 먼저 보냈다. 미실은 남편 세종을 비롯하여 여러 명의 정인이 있었지만 설화랑을 가장 사랑하였다. 그들이 580년에 낳은 막내 아들 설보종은 미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며 성장하였다. 설보종은 616년 16세 풍월주에 올라 화랑도를 이끌었다.

476) 칠처가람(七處伽藍)이란 월성에 있었던 개소의 전불시대(前佛時代)(석가모니를 비롯한 과거칠불시대, 과거칠불은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나함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이다)의 사찰터이다. 신라에 불교를 전래한 아도(我道)는 고구려인인 그의 어머니로부터 신라의 서울에는 전불시대의 일곱 개의 가람터가 있으며, 앞으로 3,000달(月)이 지나면 성왕(聖王)이 나와 크게 불교를 일으키게 될 것이니, 그곳에 가서 불교를 전파하라

는 당부 받는다. 그 일곱 곳은 금교(金橋) 동쪽 천경림(天鏡林)(지금의 흥륜사興輪寺), 삼천기(三川岐)(지금의 영흥사永興寺), 용궁(龍宮)의 남쪽(지금의 황룡사皇龍寺), 용궁의 북쪽(지금의 분황사芬皇寺), 사천(沙川)의 끝(지금의 영묘사靈妙寺), 신유림(神遊林)(지금의 천왕사天王寺), 서정전(지금의 담암사曇嚴寺, 담암사라고도 한다)이다(삼국유사의 흥법 제3아도기라조와 탐상 제4가섭불연좌석조 참조).

삼국유사에 나오는 아도에 관한 기록을 조금 더 보면, 그는 고구려의 승려로, 5세에 출가하여 16세 때 위(魏)나라로 가서 아버지 굴마(掘摩)를 찾아 뵈고, 19세 때 다시 고구려로 돌아와 어머니 고도령(高道寧)의 명을 받들어 263년(미추왕2년)에 신라 왕가에 불교를 전하려다 실패하였다. 그 후 3년 동안 일선현(현 경상북도 선산) 모례(毛禮)의 집에 숨어 있다가 미추왕의 딸 성국공주의 병을 고쳐준 공으로 불교 전도의 허락을 받고 흥륜사興輪寺를 지었다. 미추왕 사후 국인들의 미움으로 다시 모례의 집에서 땅굴을 파고 살다가 죽었다(아도와 행적이 유사한 목호자墨胡子和 동일인인지는 불명하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Available at H Mart Burlington & Quincy stores

**Ktown**

3/14 - 3/21, 2024



NEW PRODUCT!

**K TOWN PEANUT**

**케이타운 피넛**

ALL VARIETIES/4.23-10.58 OZ

~~Reg. \$3.99~~

**2\$6**  
FOR

**Dr.Chung's Food**

3/14 - 3/21, 2024

**Black Bean Soymilk**

**베지밀**

**검은콩두유**

~~Reg. \$17.99~~

LIMIT 2

**\$13.99**  
BOX



6.4 FL OZ X 24 EA  
SPECIAL GIFT BOX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Participation limited to select stores. Please verify with your local store prior to visi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 미국 부동산 보유세 - Property Tax

한국에서는 재산세라고도 한다. 집을 구매하고 나면 매년 내야 하는 집 보유세 또는 Property tax에 대해서 알아 보자. 미국에서 집을 사고 나면 매년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이견 주범으로 따른다.

State가 보유세를 가져간다. 지역마다 0.249% 에서 2.49% 집 보유세로 내야 한다. 같은 주라도 지역에 따라 %가 다르다. California같은 경우 주가 넓으므로 평균

1.05% property tax를 낸다. 대부분 보유세가 낮은 곳은 우리가 모르는 지역이 많다. 시골일수록 보유세가 낮다고 보면 된다. 보유세가 높은 곳중에 대표적인 지역은 뉴저지와 텍사스이다. 그럼 보유세는 무슨 가격에 기준으로 내는지를 물어 보시는분들이 많다. 이것도 주마다 다르다. 매매를 한 가격에 보유세를 내는 주가 있는가 하면 공시주가(Appraisal Value)에 내는 주가 있다.

나온다. 집을 매매할 경우 밀린 Property tax가 있다면 Mortgage 보다 먼저 갚아야 매매가 이루어 질수 있다. 다음 칼럼에는 취득세와 집에 대한 모든 비용 또한 이 비용을 안냈을때에 결과에 대해서 써 보겠다.



우리 Massachusetts 주 같은 경우는 공시 주가에 맞춰서 보유세를 낸다. 이 경우에 장점은 부동산이 많이 올라가도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것이고 만약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때는 좀 나쁠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Massachusetts에 투자는 현명하다. Massachusetts 같은 경우 town 마다 appraisal value에 \$1000당 \$9 에서 높은 곳은 \$20 까지도 낸다. 이걸 계산 해 보면 0.8% 에서 1.2% 계산이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3월 17일 - 3월 23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감정조절을 잘해야**

● 운수: 다른 사람은 잘 되는 일이 나한테만 잘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열 받지 않게 감정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 금전: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 손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 때입니다. ● 애정: 말을 안 해도 서로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과 상대의 마음이 같기를 바라지 마세요. 96, 84, 72, 60, 48, 36년생은 17, 21일 길일, 19, 22일 주의.

**소띠 | 확인부터 해야**

● 운수: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 금전: 세일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싸다고 사들이면 필요 이상의 지출을 하게 됩니다. ● 애정: 보는 각도에 따라 얼마든지 오해할만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8, 22일 길일, 20, 23일 주의.

**범띠 | 긍정적인 결과가**

● 운수: 평소와 잘 이어온 관계가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주위에 사람이 많은 사람일수록 얻는 것이 크겠습니다. ● 금전: 행운이 따라주는 시기이니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이나 매매와 관련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 애정: 마음속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겉으로 표현하세요. 생각보다 내 마음이 잘 전달될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9, 23일 길일, 18, 21일 주의.

**토끼띠 |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 운수: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도 팽팽하게 맞서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지금은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잘못 말을 꺼냈다가는 본전도 찾을 수 없습니다. ● 애정: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고 쉽게 말하지 마세요. 그 누구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완벽한 만족을 느끼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0, 23일 길일, 19, 22일 주의.

**용띠 | 관계회복에 도움이**

● 운수: 새로운 계기가 생기면서 밝은 전망이 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어도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것입니다. ● 금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온 사람은 그 덕을 보게 됩니다. 금전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 애정: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과 행동이 일치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관계회복에 도움이 되는 때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1, 22일 길일, 20, 23일 주의.

**뱀띠 | 즐거운 마음으로**

● 운수: 가슴 속에 맺혀있던 것이 다 풀리는 것을 느낄 정도로 속이 시원해지겠습니다. 결과가 좋으니 여유가 생기고 웃게 됩니다. ● 금전: 매상이 나아지니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돈이나 들어와야 할 돈이 들어올 것입니다. ● 애정: 새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삶에 대한 태도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9, 22일 길일, 21, 23일 주의.

**말띠 |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 운수: 어설픈게 아는 사람의 조언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 금전: 특별히 금전 관리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거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후회하는 지출을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 애정: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이상이 감지됩니다.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0, 23일 길일, 19, 22일 주의.

**양띠 | 기회의 문이**

● 운수: 결과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마음은 홀가분해질 것입니다. ● 금전: 좋을 때를 기다려오던 사람에게 드디어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 ● 애정: 조금만 더 관심을 두세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행여주는 행동이 서로 더 가까워지게 해줄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8, 19일 길일, 20, 23일 주의.

**원숭이띠 | 마음을 가다듬고**

● 운수: 미리 앞서서 겁내지 말고 침착하게 현실에 임해야 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해지면 해결책이 보일 것입니다. ● 금전: 과욕은 금물입니다. 더 큰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애정: 부딪칠 일이 생겨도 잘 피해 가세요. 정말 서로를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모로 살펴봐야 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7, 22일 길일, 18, 23일 주의.

**닭띠 | 솔직하게 말해야**

● 운수: 갑자기 소낙비를 맞은 것이라 생각하세요. 날씨 탓을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누구 탓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칫하다가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애정: 지금까지도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더 시간을 끌수록 마음의 짐이 더 커집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7, 21일 길일, 19, 23일 주의.

**개띠 | 주변 상황을 잘 살피면서**

● 운수: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움직이지 말고 주변 상황을 잘 살피면서 가야 합니다. 한 사람의 생각보다 여러 사람의 생각이 모이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 금전: 주위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때입니다. ● 애정: 열 마디의 말보다 한번의 행동이 더 강력한 전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19, 21일 길일, 18, 20일 주의.

**돼지띠 | 더 큰 것을 얻게 되니**

● 운수: 계획한 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어갑니다. 짧은 기간에도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 금전: 먼저 계산하지 말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적은 것을 양보하면 더 큰 것을 얻게 되니 무난하게 현상유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모든 것이 내 마음에 꼭 드는 상대를 만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하도록 하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20, 22일 길일, 18, 21일 주의.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나이 많으시며 치매있으신 웰즈리(Wellesley, Ma)에 사시는 저희 아버님을 파트타임으로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joint@sent.com 으로 연락주세요.

Saugus 에 있는 chois health spa 에서 카운터겸 Receptionist 와 청소 하실분 구합니다. TEL: 401 487 3004. email : choishealthspa@gmail.com

세탁소 매매  
주인 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류승룡 "닭강정이 진짜 딸로 보여 ...'테이큰'처럼 몰입했죠"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김유정 씨가 영혼을 갈아 넣어서 연기했기 때문에 진짜 닭강정이 우리 딸로 보였어요. 영화 '테이큰'의 배우 리암 니슨처럼 몰입해서 연기했습니다."

닭강정으로 변해버린 딸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버지의 이야기.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황당무계한 줄거리를 가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닭강정'이 유쾌한 웃음을 줄지 주목된다.

닭강정이 된 딸의 아버지 역할을 맡은 배우 류승룡은 13일 제작발표회가 열린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이 작품을 비장한 분위기의 액션 영화 '테이큰'에 빗대 폭소를 자아냈다.

2008년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테이큰'은 전직 특수요원인 아버지가 납치된 딸을 구하려 범죄 조직을 쫓는 내용을 다룬 작품으로, 리암 니슨이 주연을 맡았다.

류승룡은 "로그라인(한 줄짜리 줄거리)이 굉장히 신선했다"며 "상상 이상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작품인 만큼 많은 분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작품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닭강정'은 최민아(김유정)가 아버지 최선만(류승룡)의 회사에 놓여 있던 의문의 기계에 들어갔다가 닭강정으로 변신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공개된 예고 영상에는 수상한 기계에 들어간 최민아가 우연히 "어? 닭강정!" 하고 외치자 커다란 연기와 함께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작은 닭강정이 놓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 장면을 목격한 최선만의 회사 직원이자 최민아를 짝사랑하는 고백중(안재홍)은 선만과 함께 민아를 되돌리기 위해 노력한다.

안재홍은 "어디서도 상상조차 해볼



수 없었던 이야기라 너무나 신나고 쾌감이 넘치는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며 "한 번 맛보면 멈출 수 없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웹툰 원작 속 인물과 제 생김새가 비슷해서 '내가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외적으로는 다른 변화 없이 머리에 가르마만 댄데도 웹툰과 유사한 느낌을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드라마는 영화 '극한직업'(2019)의 이병헌 감독이 연출한다. 이 감독과 류

승룡은 '극한직업'에 이어 두 번째로 닭튀김과 관련된 작품에서 호흡을 맞춘다.

이 감독은 "또 닭과 관련된 작품에 출연하면 이미지가 고착되는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류승룡에게) 출연을 제안하기 전 마음에 걸렸다"며 "그런데 (류승룡이) '무빙'에서 닭을 튀기고 계신 걸 보고 부담감을 내려놓고 제안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10부작인 '닭강정'은 이달 15일 전편이 공개된다.

## BTS 정국, 빌보드 싱글 18주 진입...싸이 이후 韓 솔로 최장 기록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솔로 앨범 타이틀곡 '스탠딩 넥스트 투유'(Standing Next to You)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18주 연속 진입하며 한국 솔로 가수 사상 두 번째 최장진입 기록을 세웠다.

12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이 노래는 전주보다 두 계단 오른 85위로 집계됐다.

'핫 100' 18주 진입은 한국 솔로 가수로는 싸이의 메가 히트곡 '강남스타일'이 세운 31주에 뒤이은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정국이 발표한 노래 가운데 '스탠딩 넥스트 투유' 다음으로 '핫 100'에 오래 머문 노래는 찰리 푸스와의 협업곡 '레프트 앤드 라이트'(Left

and Right)가 기록한 17주다. 정국의 솔로 데뷔곡이자 글로벌 히트곡 '세븐'(Seven)은 이 차트에 15주 진입했다.

결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더 위켄드·릴리 로즈 템과 협업한 미국 드라마 '디 아이돌'(The Idol) OST '원 오브 더 걸스'(One Of The Girls)는 '핫 100'에서 전주보다 네 계단 하락한 55위로 11주째 진입했다.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는 트와이스 '위드 유-스'(With YOU-th)가 35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르세라핌 '이지'(EASY)가 50위, 방탄소년단 정국 '골든'(GOLDEN)이 90위, (여자)아이들 '2'가 132위를 각각 기록했다.

tsl@yna.co.kr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사순절' 아침 묵상 시간에...

"그러나 그가 찢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이사야 53:5-6)

오늘 아침도 하나님 당신 이름을 찾고 부르며 시작합니다. 저 들가의 덩불처럼, 흩어져 날리는 먼지처럼, 아무것도 아닌 나를, 나를, 우리를 살리신 주님! 당신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오늘 이 아침에도 호흡하며 당신을 찬양합니다.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내동댕이 칠 때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쟁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 목에 거는 악세사리 십자가처럼 목에 걸었다, 뺏다를 얼마

나 많이 반복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무니만 예수쟁이'로 살았던 저를 주님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발 하나 담그고 날름날름 내이속대로 주님을 남발했습니다. 이 아침 이 사야 53장을 만나며, 저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용서해주세요.

"우리의 입고 살아가는 <허물>과 우리가 버리지 못한 <악함>으로 인해 대신 고통과 고난을 짊어진 주님의 종을 늘 기억하며, 주님 베푸신 '용서'로 '평화'의 은혜를 전하고, 주님이 베푸신 '치유'로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겹 없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내 속에 가득한 우상들(돈, 명예, 성공, 자식의 공부와 직장 등~)을 끌어안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 얻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없음'에서 '있음'을 창조하시고 단 한 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나에게 베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후~'하고 불면 꺼질 나약한 나의 존재를,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처럼 사라질 나의 생명을 오늘 이 순간까지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독히도 '이기적인 나'만을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으로 결혼을 한 후에는 남편의 따뜻한 사랑으로 그리고 세 아이가 자라니 아이들로부터 또 넉넉한 사랑을 받습니다. 이 주신 사랑들로 이미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제는 '나' 아닌 또 다른 '나(남)'를 위해 봉사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에서 값없이 주신 건강, 시간, 재능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들을 추운 세상에서 시리고 아픈 이들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과 나누겠습니다.

바쁘다는 이유와 핑계를 대며 다른 이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알면서도 귀찮아서 모른 척 비껴갔는지도 모릅니다. 양심에 찔림을 알면서 스스로 무디게 만들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 주시는 귀한 말씀에 깊은 묵상의 시간과 마주합니다. 이 시간에 내게 찾아오신 당신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대면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나의 존재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분명하게 일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의 욕심과 허물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이 있는지 잠시 생각해봅니다. 사순절 기간동안의 아침에 드리는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그 상처가 씻김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죄 뉘와 악함마저도 끄집어내어 알게 해 주시고 고백하고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당신의 의로운 오른팔과 오른손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Praise the Lord!! ^ ^

나 자신의 욕심과 허물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이 있는지 잠시 생각해봅니다. 사순절 기간동안의 아침에 드리는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그 상처가 씻김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죄 뉘와 악함마저도 끄집어내어 알게 해 주시고 고백하고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당신의 의로운 오른팔과 오른손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Praise the Lord!! ^ ^

나 자신의 욕심과 허물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이 있는지 잠시 생각해봅니다. 사순절 기간동안의 아침에 드리는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그 상처가 씻김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죄 뉘와 악함마저도 끄집어내어 알게 해 주시고 고백하고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당신의 의로운 오른팔과 오른손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Praise the Lord!! ^ ^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담객설閑談客說: 도자기 미술품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회화 작품은 눈으로 본다. 그리고 마음으로 느낀다. 그럴리아 없다. 그러나 만질수만 있다면 쓰다듬어 볼수도 있겠다.

유화 작품 앞에 설 적이다. 만지고 싶은 욕망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욕심은 눈과 마음보다 앞서는데, 만져보라 유혹하는듯 작품이 눈짓 하는가 싶은 거다. 가당치도 않은데, 귀한 작품을 만지는 건 아예 언감생심 일뿐 인게다. 손대지 마시오. 경고 문구가 붙어있기 십상이고 경비원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다.

책을 뒤적이다, 사진 한장을 주웠다. 도자기 사진이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으로 끌려

갔던 도공의 작품이라 했다. 평범한 갈색 밥그릇처럼 보였는데, 크기가 작으니 찾잔이란다. 이 찾잔이 일본에선 국보라 했다.

시조 백자부白瓷賦가 떠올랐다. 고등학교적에 배웠고, 시조시인 김상옥 선생의 작품이다. 한 절만 옮긴다.

찬서리 눈보래에 절개 외려 푸르르고 바람이 절로 이는 소나무 굽은 가지 이제 막 백학 한쌍이 앉아 깃을 접는다 (김상옥, 백자부 중에서)

시인은 백자를 만져 봤을까. 만지고 즐겼

던가 말이다. 백자도 귀한 작품일 테니 텔레비전 연속극에 나올 수도 있다. 재벌집 주인이 편안히 앉아 백자기를 쓰듬는 장면인게다.

돌아간 삼성그룹 총수의 컬렉션이란다. 컬렉션은 모두 진품과 명품일 텐데, 진귀한 도자기도 포함되어 있을 게다. 많은 돈을 들였을 테지만, 그는 젊었을 적부터 백자를 감정하고 수집할 수 있는 수준에 올랐다고 전한다. 취향이 남달랐으니 안목과 정성은 칭찬받을 만하다.

만질 수 있는 조각과 회화작품을 전시해야 하지 않을까. 작품에 손대는 걸 허락하

리는 말이다. 접근금지라 표식을 내리라는 거다. 하긴 귀한 작품이 괜히 손상입을 수는 있겠다. 손타는 위험이 따르는 건 명약 관화인 게다.

설령탕을 먹을 적이다. 국물은 푹배기를 손으로 잡고 훌훌 마신다. 따뜻한 커피가 담긴 머그는 두손으로 잡고 만지며 훌쩍인다. 푹배기나 커피머그는 모두 질그릇이다.

글은 눈으로 읽는데, 글은 만지고 싶다고 만질 수 없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디모데 후서2:20)



# 휴람 - 성형외과

## 해외 동포 특별가 성형 패키지



### 성형 패키지 특별가 이벤트

- 눈 꺼풀 + 눈 밑 처짐..... 360 만원      콧대 + 코끝 ..... 350 만원
- 얼굴 처짐(목 처짐 포함)..... 700 만원      지방흡입(복부)..... 500 만원
- 가슴(보형물에 따라 가격 상이)..... 600~1,000 만원

\* 상담 결과에 따라 수술 방법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람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 617.949.1766

010-3469-4040 / ID : huraamkorea  
huraam@huraam.kr / www.huraamkorea.com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유독 식후에 가래 끊는다면... '이 질환' 때문일 수도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가래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래 관련 질환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의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신종욱 교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밥만 먹으면 심하게 가래가 끊는 사람들이 있다. 객담이라고도 불리는 가래는 기관지나 폐에서 생성되는 끈적끈적한 점액성 액체를 말한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유독 식후에 심해지는 가래는 어떤 이유 때문인 걸까?

◇ 역류성식도염

가장 흔한 원인은 역류성식도염이다. 역류성식도염은 위 속 음식물과 위산이 함께 역류

하면서 식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중앙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신종욱 교수는 “역류성식도염이 있으면 위산이 식도 옆에 있는 기도 쪽 신경을 자극해 가래가 많이 나올 수 있다” 며 “심할 경우 후두까지 위산 등이 올라가 다시 기도로 들어가면서 심하게 기침·가래가 생길 수 있다” 고 말했다. 식사 후 잦은 가래와 함께 ▲가슴 쓰림 ▲목 답답함 ▲속 쓰림 등도 함께 나타난다면 역류성식도염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 폐나 기관지의 염증

폐나 기관지 쪽이 예민하다면 식후에 가래가 끼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신종욱 교수는 “▲만성기관지염이나 ▲급성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천식 등이 가래를 일으키는 흔한 원인이다” 며 “진료를 받을 때 오랜 치료를 요구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질환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상담해봐야 한다” 고 말했다.

다. 만성 기관지염·천식 등이 있으면 평소 끈적 끈적한 점액성 가래가 생기고, 폐렴·폐농양·기관지확장증 등의 질환이 있을 땐 양이 많은 누런색 가래가 생긴다.

◇ 위염·비염·후비루증후군 등

기도(상기도, 하기도)와 호흡기관은 바로 옆에 붙어 있어 위염, 비염, 후비루증후군 등 다양한 질환 또한 가래 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종욱 교수는 “위산 역류, 위염, 비염, 후비루증후군 등이 다 독립적인 게 아니고 같이 있는 경우도 많다” 며 “그럼 더 문제가 될 수 있어 복합적인 관점에서 진료, 진단하는 게 중요하다” 고 말했다. 심지어 천식도 같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럼 기침과 가래가 많이 나올 수 있다. 한편, 후비루증후군이란 코와 목에서 분비하는 점액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인두에 고이거나 목으로 넘어가는 증상을 말한다. 평소 가래가 뱉어지지 않고 목에 걸린 느낌이 있으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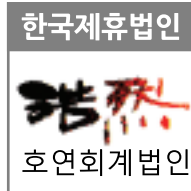
심해볼 수 있다.

“유독 식후에 가래 끊는다면... '이 질환' 때문일 수도”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 의료사업부 김수남 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 휴람은 상담-예약-검진진행-사후관리를 보호자역할로서 도와드립니다.  
\*\* 지금 상담을 통해 고객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검진을 결정해 보세요!!



## 휴람 건강검진 이벤트

###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 (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 (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 (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 (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 4시간 : 49만원 ~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검사

###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60만원 ~

- 당일종합검진 +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9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남] 경동맥초음파, 뇌MRI, 뇌MRA
- 숙박종합검진 + [여] 뇌MRI, 뇌MRA

###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22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뇌MRI, 뇌MRA, 심장 CT, 심장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 [남] 갑상선초음파 [여] 폐CT

###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전 ~ 명일 12시경 퇴원 : 370만원 ~

- VIP종합검진 + PET-CT, 복부조영CT, 호르몬검사, 호모시스테인(중풍, 심혈관질환 인자)

### 휴람건강검진 네트워크 병원

휴람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 강남지인병원(논현동 학동역)  
강남병원(용인시 신갈동 기흥역)

※ 프로그램에 따라 픽업서비스, 물품세트, 죽등을 제공합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 한국방송은 티보플레이로 보세요

티보플레이로 전환하시면  
지금 보시는 한국방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855-826-4636  
855-TBO-INFO

#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The 22<sup>nd</sup> Overseas Elections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



# 3.27. ~ 4.01.

세계 곳곳에서 전하는 한 표 희망찬 대한민국 미래의 시작

Each vote from every corner of the world, the beginning fu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filled with hope

투표기간  
Voting Period

**2024.03.27.~04.01.**

매일 08:00~17:00 every day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The voting period may vary from one diplomatic mission to another.



선거정보 등 확인  
ok.nec.go.kr

투표장소  
Voting Place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소

The place designated by the Overseas Election Commission

투표대상  
Eligible Voters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Korean nationals enrolled in official lists of overseas absentee voters or overseas eligible voters

준비물  
Required Documents

신분증명서 (단,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서류 원본 함께 지참)

※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별도의 신분증은 필요없음.

※ 국적확인서류는 해당 공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An identification certificate

(Overseas eligible voters should also prepare original copies of the documents required to identify the nationality.)

※ Additional identification certificates are not necessary if a photo is attached to the documents that identify the nationality

※ Documents to identify the nationality are available on the website of the relevant diplomatic mission.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에서 선거정보 등 확인 가능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websites for the Overseas Election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k.nec.go.k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go.kr), and Overseas Koreans Agency (oka.go.kr).



#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

##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2



3



###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